





2023

#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1기 성과와 방향 찾기



# 2023 환경교육포럼 대전환경교육센터1기 성과와 방향 찾기



## ● 모시는 글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가 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대전지역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시

2023년 12월07일(목)15시30분~17시30분

## ◎ 장소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100

## ◎ 발제

발제1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1기성과 및 과제

김진화 지속가능연구소우리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발제2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2024년 환경교육 방향은?

김문옥 광덕산환경교육센터장

## ◎ 토론

학교, 사회환경교육 관계자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

▼ 참여신청



오실 때는 텀블러 가져오기  
자동차 이용 대신 자전거  
대중교통이용하기



## 2023 대전 환경 교육 포럼 4차

#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1기 성과와 방향찾기

	진행내용	
1장. 발제	발제자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1기 성과 및 과제
		김진화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24년 대전지역 환경교육의 방향
		김문옥 (광덕산환경교육센터장)
2장. 토론문	사회자	장미정(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장)
	토론1	오희령 대전정림중학교
	토론2	나종수 대전환경교육센터
	토론3	이미선 법2동주민자치회
	토론4	이운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토론5	배능재 대전성모초등학교
	토론6	박경희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토론7	조수영 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토론8	임효인 중도일보
3장. 64인 목소리	환경교육미래를 위한 대전환경교육공동체 64인의 목소리	



**발제자**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1기 성과 및 과제**

**김진화**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1기 성과와 향후 과제

김진화 이사장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해 사회적협동조합)

## 1. 들어가는 말 - 환경교육의 중요성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1기 성과와 과제를 발제문은 대전지역 환경교육 공동체 관계자들이 전달해 주신 의견들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성과는 센터에서 정리한 사업보고서가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발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전지역 환경교육 공동체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더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는 지구촌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에 동참해야 합니다.

환경교육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 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은 환경을 보전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환경교육은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환경 보호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환경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을 받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등 오늘날 환경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환경교육센터 운영실태 - 15개 광역, 48개 기초단위 환경교육센터 운영

2023년을 기준으로 정부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부산,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세종, 제주, 대구 등 총 15개 광역지자체에서 18개의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 환경교육센터는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현재 48개 지역에서 기초단위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권역별 지역별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교육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전광역 시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2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면서,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0조(대전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12조(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된 「대전환경교육센터」는 대전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146만 대전광역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3.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1기 성과와 과제

자세한 내용은 1기 사업보고서 자료로 대신합니다.

<표1> 대전환경교육센터 활동 성과

증점과제	사업내용	2021년		2022년		2023년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1. 환경교육 기반구축	1.1 센터운영(교육기획팀) - 운영위원회 개최 및 자문위원회 개최 - 직원교육(성희롱, 안전, 직무역량강화교육)	3	25	3	30	5	151
	1.2 환경교육 주간 - 지구를 위한 그린데이블	-	-	-	-	3	2,586
	1.3 환경교육 정책개발(교육기획팀) - 현황조사, 수요조사 - 환경교육 정책발굴을 위한 포럼	1	126	3	607	2	344
	1.4 온라인환경교육 통합 플랫폼(교육운영팀) -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환경이슈'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 기타홍보채널(메타버스)	2	9,867	2	13,703	2	23,632
2. 협력 네트워크 구축	2.1 환경교육 한마당(교육운영팀) -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육 - 청년들과 함께하는 미래환경의제발굴 워크숍 - 시민참여행사(포포먼스, 전시회, 참여부스 등)	5	870	5	607	5	-
	2.2 자원연계사업(교육기획팀) - 환경교육 협업사업 발굴 간담회 - 환경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4	67	4	177	4	220
	2.3 기후위기 시나리오 공모전(교육운영팀) - 기후위기 대응 시나리오 공모 - 발표대회 및 시상식	-	-	2	85	2	634
	2.4 환경교육 성과공유회 - 환경교육 성과공유회	1	150	1	55	1	-
3.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3.1 그린스쿨사업(교육기획팀) - 학교환경교육 우수사례집 발행 - 지구를 위한 탄소다이어트 지원사업	2	1,936	2	866	2	1,107
	3.2 교사연구모임 - '환경실천' 교사연구모임 - '환경이슈토론' 교사연구모임	2	20	2	39	3	41
	3.3 교사환경연수(교육기획팀) - 탄소중립교사 연수 - 생태전환교사 연수 - 찾아가는 교사연수(수시)	3	154	3	283	2	283
4. 사회 환경교육 강화	4.1 지역특화사업(교육기획팀) - 지구를 위한 그린액션 시리즈 - 컨설팅 - 교구, 교재 대여 - 예비유아교사 환경연수 - 청소년 환경캠프	3	20	3	656	5	5,201
	4.2 환경교육연구회(교육기획팀) - 프로그램 개발 기획 모임 -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 개발	-	-	1	80	1	117
	4.3. 전문가 양성 - (기본과정) 기본역량강화 교육 - (중급과정) 환경이슈토론, 자원순환전문가 양성	5	687	10	396	2	1,719
합 계			13,922명	17,584명		36,035명	

\*출처: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제공

#### 4. 전국 유일의 대전환경교육 관련 예산 전액삭감

최근 확정된 '2024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의하면,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예산(2023년도 기준 3억)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오는 12월 31일부로 시민환경교육기관이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방정부는 건강한 지역사회, 신뢰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건강한 지역공동체와 지속가능한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을만들기, 환경교육 강화 등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예산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번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신뢰사회,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소통·협력·대안사회를 위한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기존에 있던 관련정책 및 예산을 전면 폐지하거나 또는 지원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신뢰사회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자본 육성 등의 신뢰사회와 대안사회를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던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인권센터>,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등의 3개 기관·단체의 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12월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폐쇄는 시민참여와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전시는 이들 기관에 대한 폐쇄 결정을 내린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5. 대전시의 대전환경교육센터 폐쇄 결정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결과

2024년도 대전 예산안에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비 전액이 삭감되었다는 소식에, 대전환경교육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왔던 대전환경교육센터 활동가뿐만 아니라, 환경강사 및 환경교육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시의회로 넘긴 2024년도 예산안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2024년 1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환경교육센터만이 폐쇄될 상황입니다. 다른 광역시·도는 국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시비와 지방비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유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전환경교육센터는 지난 11월 8일 대전환경교육한마당에 모이신 교사, 환경교육 강사, 활동가,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전환경교육센터 관련 ‘2024년도 운영·지원예산’ 전액삭감이라는 대전시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관계자, 학교교사, 환경교육강사 등 지역의 환경교육 관련 리더 62명이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환경교육 활동가, 강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환경교육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같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환경교육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고민하고 꿈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환경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뚜렷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교육을 접하셨던 어떤 시민은 대전환경교육 예산의 전액삭감이라는 2024년 대전시 예산안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전 지구적인 움직임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폐쇄되는 것은 대전시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소식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더 건강하고 푸른 대전의 내일을 위해 환경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납득 가능한 설명하나 없이 대전시가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권리를 빼는 행위이자, 환경교육진흥법과 대전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하나같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사람들이 작금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는 대전시민의 환경교육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환경교육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62분의 대전환경교육 관계자들이 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은 꼭 필요

■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 전액삭감에 분노

- 환경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할 상황에 전액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
- 대전시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
- 예산삭감은 대전시민의 환경교육권을 빼앗는 행위
- 환경교육 예산삭감은 대전시가 환경교육을 등한시한다고 인식
- 환경교육은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수단으로 인식 필요.
- 더 건강하고 푸른 대전의 내일을 위해 환경교육은 필요하며, 지속되어야 함
- 환경은 우리의 미래이고 삶이고 경제(돈)
- 꾸준한 투자가 필요.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제공 및 강화가 절실, 환경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
-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확대가 시급히 필요. 그 시작이 환경교육 임.

## 6. 환경교육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대전의 유일한 기관’

대전환경교육센터는 그동안 환경교육자 연수 및 워크숍, 월별 환경교육, 환경교육한마당, 연구모임, 환경학습동아리 지원, 환경교육 가이드북 제작, 환경뉴스레터 발행 등의 다채로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지역사회의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을 선도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단체와 활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세분화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전환경교육센터의 각종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환경도서 대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학습공동체 운영
-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
-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됨
-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개인 및 시민역량을 만드는 기회가 됨

### 2) 학교, 복지관 등 환경교육네트워크에 기여

- 초·중·고등학생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익한 환경교육 사업을 경험하였음
- 학교,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시민들이 환경교육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었음

### 3)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국내외 환경교육 사례 공유
- 환경교육연수, 환경교육정보, 환경교육 콘텐츠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
-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 환경교육 강의자료 및 강의 교구재 개발 및 보급
-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환경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지역현장과 연결한 가이드북 제작 사업
- 교구제작 등을 통해 기업의 매출성장에도 도움이 되었음
- 학교환경교육 사례공유회
- 자원순환프로젝트 수업설계
-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 4) 탄소중립교육 교사연수 통해 생태전환교육의 의미 인식

-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기회
- 생태전환교육의 의미 인식 및 학생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

### 5) 학교 환경교육의 질 개선

- 탄소중립연수를 통해 교사의 환경교육 자질 향상과 환경교육 방향 제시함

- 월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지구를 위한 그린테이블, 탄소다이어트 등) 참여하며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
- 강의 콘텐츠와 교재를 제공 받아 막막했던 환경교육을 수월하게 시작
- 학생들 대상으로 양질의 환경프로그램 진행했던 경험

**6) 매주 이메일로 배달되는 환경교육(뉴스레터 ‘환경톡톡’)**

- 각종 환경정보 및 환경교육 소식 공유
- 이를 통해 생활 속 환경실천 및 환경동아리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대전환경교육센터 통해 환경교육 정보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음

## 7. 대전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대전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들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 3가지가 핵심이었다.

### 1) 환경교육 측면에서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지속적인 확대 필요

- 학교환경교육 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지원이 확대·강화되어야 함
- 환경강사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강화 필요

### 2) 대전만 환경교육 양성기관 부재하다는 점에서도 대전환경교육센터 역할 필요

- 다양한 교사, 학생, 학부모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 참여프로그램,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시민들에게 환경교육 참여기회 확대
- 교사, 학생, 학부모의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기회 더욱더 확산
- 지역사회 환경교육 및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추진되어야 함

### 3) 환경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필요(환경교육 관련 워크숍 등)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역기업들과 연계한 필수 환경수업 필요
-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교육 축제 및 콘서트 기획 추진
- 사회환경교육 및 학교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대전지역에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인프라가 구축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대전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이나 교육장이 부재했다는 점에서도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들이었다. 대전지역사회가 더 건강하고 푸른 내일을 위해 환경교육은 더 강조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 같다.

## 8. 나오는 말

대전지역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현재 지구는 누구나 알고 공감하고 있듯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경제적 효율성만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없는 시대이며,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인 성장일변도는 용납되지 않고 도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후생태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필리핀 속담에 ‘하고자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싫은 사람은 핑계부터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가 전지구적인 환경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모범적 활동을 통해 많은 환경교육 강사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 없이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하는 것은 핑계부터 찾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에는 적정인원과 적정예산이 필요하지만 매우 적은 예산으로 소수의 인원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 기후위기 시대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치와 정책, 예산은 알고 보면 모두 같은 말입니다. 대전시가 대전 유일의 환경교육기관인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것은 환경교육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자, 기후재난, 기후적응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정치 실종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대전시는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대전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도시입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의 첫 구호는, 일류 경제도시입니다. 과학 도시와 일류 경제도시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속에서 위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환경 교육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이 반영되어 대전의 환경교육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이상.

**발제자**

**2024년 대전지역 환경교육의 방향**

**김 문 옥**

광덕산환경교육센터장







# 2024 환경교육

김문옥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이학박사)

## Contents

01

환경과 교육 이야기

02

환경교육 제도

03

국가환경교육 표준

**CEC**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청소년기후행동: 수업결석시위



지지 혹은 매우 지지

72.4% 출처: 국가환경교육센터, 2020. 3.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조사

헌법소원



3

계란으로 바위 깬다...미국 청소년들 기후 소송 '역사적 첫 승리'

인권위, 기후소송에 "탄소중립법 목표치 낮아 위헌" 의견 낸다

입력 : 2023.08.15 15:14 | 수정 : 2023.08.15 17:44 | 최서은 기자

☆ ↻ ↺

국헌선 기자 **가주목** 남봉영 기자 **가주목**

f t v p ★ 📧 가\*

“화석연료 정책 승인할 때 기후 피해 고려해야”  
몬태나주 법원, 소송 제기 3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행동 촉구하는 소송 물결 전방

현재에 제기된 기후소송 2건  
“미래세대에 부담돼 불평등”



지난 6월 기후 소송 재판을 위해 청소년들이 몬태나주 법원에 도착했다. A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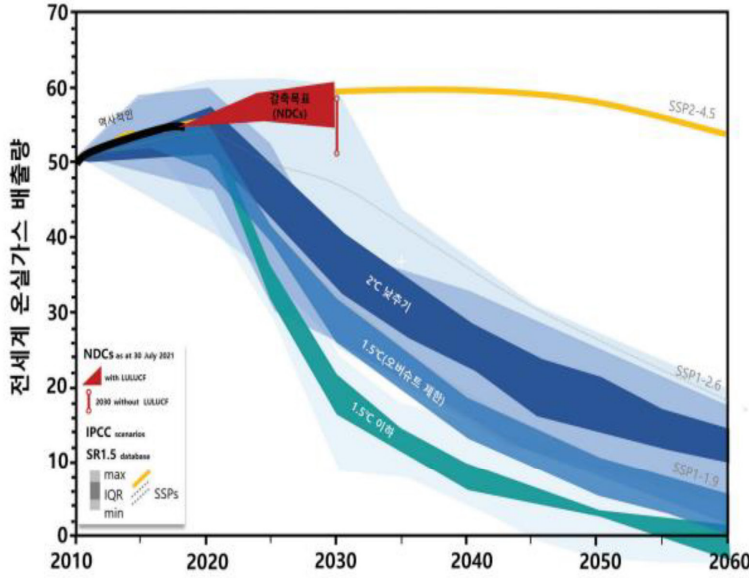


20주차 태아 포항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이기 기후소송단'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kim@han.co.kr](mailto:kkim@han.co.kr)

미국의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하며 헌법상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았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이와 유사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세대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이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11월 기준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 했지만



[그림 6]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 감축 경로(빨간색)  
(UNFCCC, 2021)

-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가 9월 17일 발간한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감축 기여(NDC)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들이 제출한 목표치(164개국)로는 2010년 대비 배출량이 2030년에 16.3%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구평균기온 2.7도 상승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 IPCC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을 권고했다.
- 옆의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의 감축 경로는 1.5도는 커녕 2도 경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다.

기후행동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동



청소년 기후행동 청소년 일동

- 📢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해주세요.
- 📢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를 즉각 중단해주세요.
- 📢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법제화해주세요.
- 📢 빠른 시일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해주세요.
- 📢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시민들의 뜻대로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민주주의는 건재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7

01 환경과 교육 이야기 **환경교육이 관심 가져야 할**

**유엔 인권이사회(2008년)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안'**

"기후변화가 인류와 사회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위험을 야기하며,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영향을 미칠 것"



**미셸 바첼렛** 전 대통령 | Michelle Bachelet

<인권의 3대 위기>

1. 기후위기
2. 생물다양성 상실
3. 공해와 독성



**메리 로빈슨** 특수단체인 | Mary Robinson

출생 1944년 5월 21일, 아일랜드  
 학력 트리니티 대학교 법대  
 경력 1998.~2002. 2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역임  
 수상 국제인권상

현) 메리 로빈슨 기후재단  
 세계 최고 인권전문가가 기후변화 운동

8

2022년 이상기후보고서 주요 내용



**8월 집중호우**  
총 19명 인명피해  
장마장마 종료 후에도  
정체전선 중부지방영향



**가뭄**  
227.3일  
1974년 이후 최장  
기상가뭄



**이른 열대야**  
6월 25~27일에 발생  
예년보다 이른 시점,  
서울 6월 27일 25.8°C 기록



**온열질환자**  
총 1,564명  
전년 대비 13.7% 증가,  
사망 9명 포함



**태풍**  
한반도 영향 5개  
평년 3.4개보다 많음,  
7년 연속 9월 태풍 영향



**9월 일강수량 극값**  
212.3mm  
2022년 9월 6일 경주시  
(태풍 힌남노 영향)

자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

사진 출처: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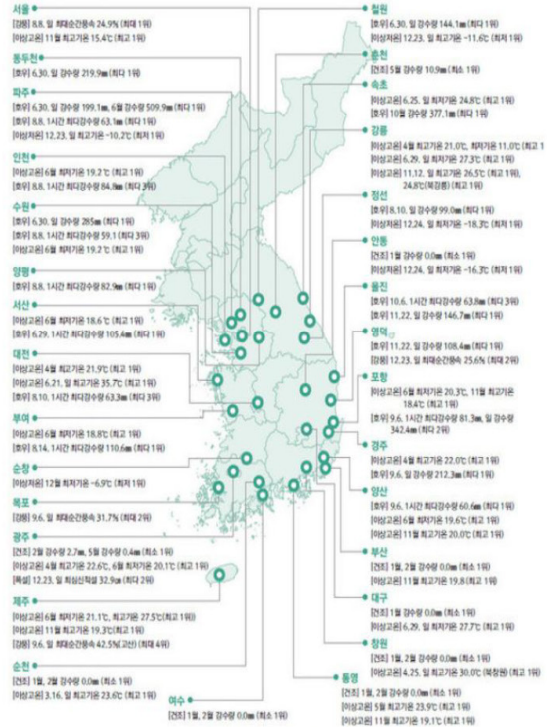


사진 출처: 광주일보 블로그



사진 출처: 노컷뉴스

사진 출처: 세계일보

국회입법조사처(2020년 3월)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

(반)지하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9.4%, 소득하위가구 15.5%, 장애인이 있는 가구 15.5%, 고령자가 있는 가구 9.1%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

반지하 주거 환경,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80만 가구



01 환경과 교육 이야기 **환경교육이 관심 가져야 할**

코로나19는 재난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의 악영향은 '차별적'임을 보여주었다. 사회의 약한 고리에 속한 계층에게 코로나19는 직격탄이 되었다. 또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촉발제가 되었다. 바이러스 사태는 재난의 사회적 차원을 우리에게 각인했고, 이 점은 기후위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탄소사회의 종말 (조희재, 2020)**



구독하기 > **시사저널** 2023.07.08 1760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LIFE 연애 스포츠 OPINION 네트

**“아기데리고 광으로 피신” 미세먼지가 불러온 ‘맘부격차’**

ⓒ 박성희 기자 (sos@sisaajournal.com) | 승인 2019.03.05 13:00 | 조회수 1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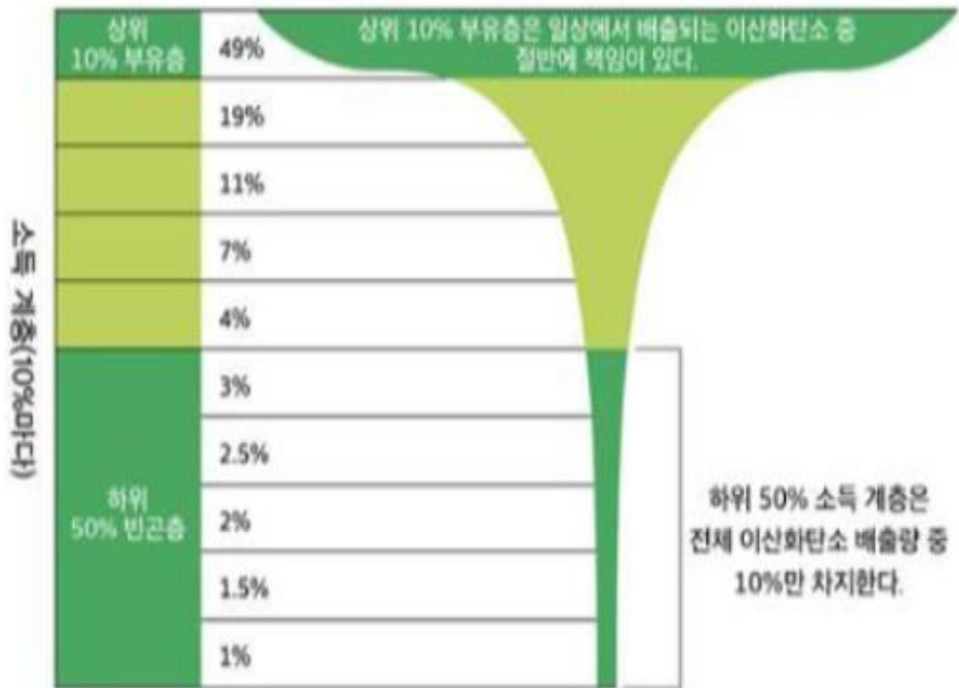
“맘부격차”에 “미세먼지 도피 해외여행” 글들 공유...“나라 아닌 돈이 내 아이 지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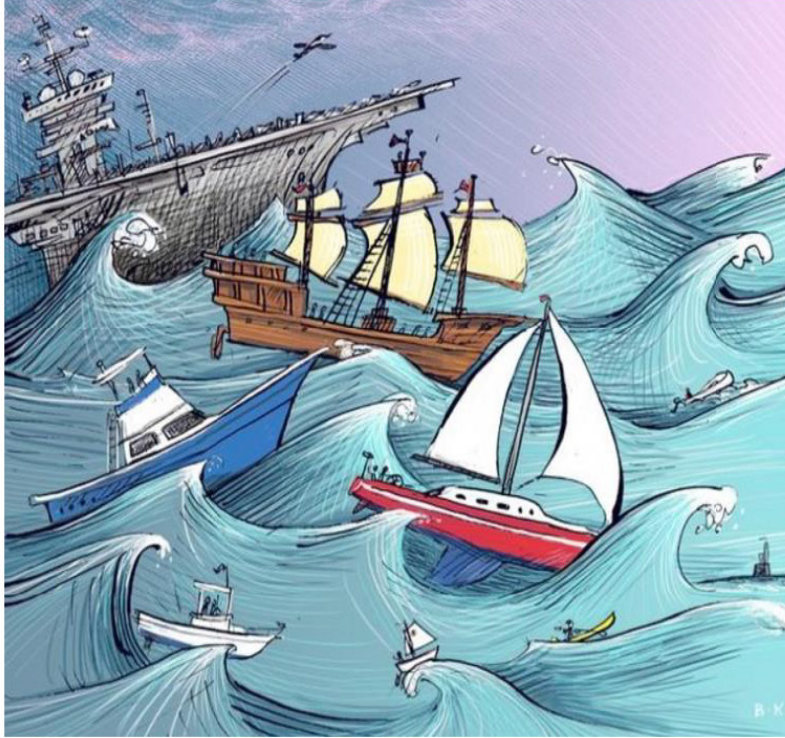
“오늘 미세먼지 농도 최악. 아기랑 광에서 한 달 살다 오려고요.”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지난 1월15일, 서울 한 지역의 맘 카페(해당 지역의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 공간)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글이 갖 지난 말아이를 두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아기에게 미세먼지는 독약, 우리 막동이 몸 지킬 걸 출국”이라고 일상을 전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댓글 심여 개가 달렸다. 댓글 대부분이 곧 체류비용이 나 방법 등을 묻는 문의 글. 그러나 같은 글을 읽은 또 다른 엄마 송이무개씨는 “정말 부럽네요ㅠㅠ”라는 댓글만을 남긴 채 로그아웃했다. 아이의 돌간지도 생략한 형편에, 어릴잖아 수백만원이 드는 미세먼지 탈출기를 공강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엄마들의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다. 수입산 미세먼지 측정기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가 육아 필수품으로 부상한 가운데 아이를 위해 “미세먼지 청정국”으로 출국했다는 체험담이 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일 공유되고 있다. 과거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발레’ 등이 부모 부(富)의 가능자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이른바 ‘맘부격차’(Mom+빈부격차)의 지표가 되고 있는 셈이다.

01 환경교육 이야기 **환경교육이 관심 가져야 할**





unesco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unesco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우리 인류와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취약성과 상호연결성을 동시에 증명해 주었다. 이 경로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구상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긴급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이 보고서는 교육의 힘이 심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인류는 이중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든 아동, 청소년, 성인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미만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경로로서 교육이 갖고 있는 변혁적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미래를 바꿔 놓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권에 근거를 두고 차별금지 및 사회정의, 생명 존중, 인간 존중 및 문화 다양성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돌봄의 윤리, 호혜주의, 연대를 포괄해야 하며, 공동의 사회적 노력(shared societal endeavours)이자 공동재(common good)로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2년에 걸쳐 약 백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 협의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전 세계의 정부, 교육기관, 단체, 시민들에게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데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비전과 원칙, 제안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이를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미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런 부분을 포착해 기반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다. 이 보고서는 실용적 매뉴얼이나 청사진이 아니라, 역동적인 대화의 시작이다.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고 미래를 바꿔 놓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인류의 미래는 자구의 미래에 달려있고 이 높은 지 금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그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 급한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와, 지구와, 그리고 기술 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우리가 과거의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고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이 계약은 무엇보다도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르침과 배움을 공동의 사회적 노력, 즉 공동재(common goods)로서 강조하고 있다.

(오드레 아즐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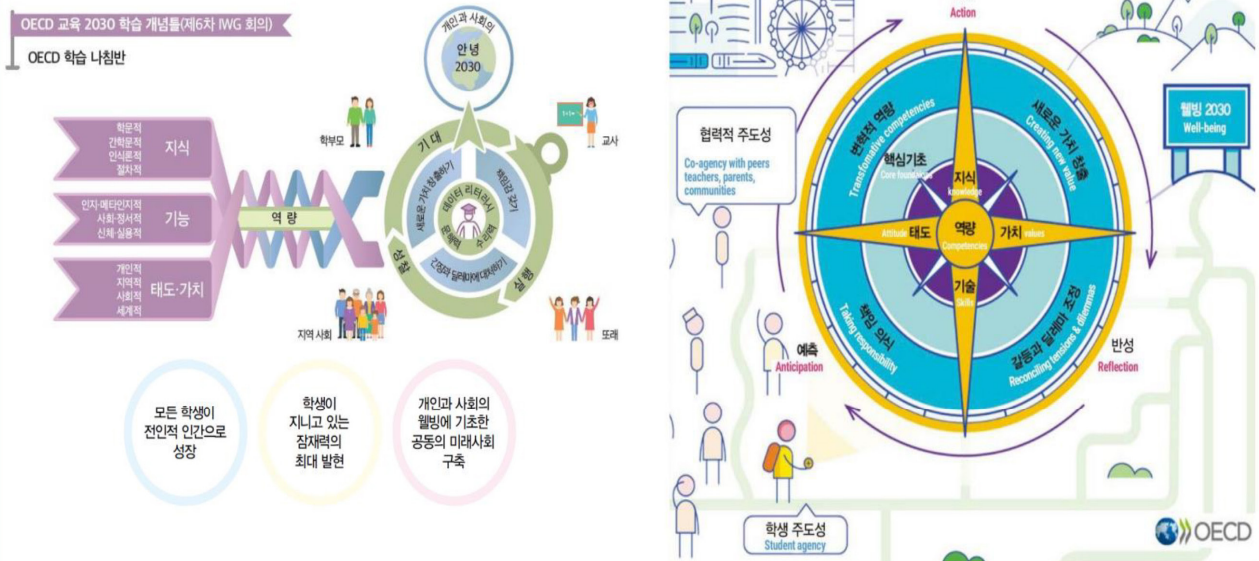
## OECD의 DeSeCo 프로젝트 (1997~2003)

-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선택하는 프로젝트
- '성공적인 삶과 잘 기능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 특정 지식이나 기능보다는 여러 지식이나 기능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사회 공동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핵심역량

핵심역량 범주	하위 핵심역량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Using tools interactively)	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성찰성 (reflectiveness)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
	팀에서 활동할 때 협력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Acting autonomously)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큰 그림을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
	생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
	권리, 이익, 한계, 요구를 주장하고 지키는 능력

성찰성 :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핵심역량을 일상에 걸쳐 습득하기 위해서는 성찰하는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OECD 교육 2030(2018) : 학습나침반과 변혁적 역량





IPCC 제6차 평가서 종합보고서(AR6)\_2023.03.20.

**“이제 10년 남았다”**



1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 선언 (2020.07.09.)



-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배우는 「생태문명의 핵심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역에서 함께 찾아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시작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통해 다가치(민주, 인권, 평화, 다문화, 환경 등)를 내면화하면서 지구공동체의 생태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

### 생태전환교육

- 생태전환교육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 교육의 생태적 전환

- "자연과 인간의 공멸이 현실화된 우리 시대 최고의 버전은 '생태 사회로의 전환'이다. (...) 물론 이것이 생태 수업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환경'이나 '생태' 같은 교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 내용이나 활동은 생태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육은 생태교육이어야 한다."
- "우리는 교육이 더 많은 성장과 분배를 추구했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적 전환의 구체적 과정과 목표를 제시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교육의 생태적 전환은 교육의 구조와 일상을 포함해 학교 조직, 재정 구조, 생활 방식, 사고방식 등 반생태적인 교육을 생태적인 교육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영, 김문옥 외. 2022. 국가환경교육표준 연구)

### 서울시교육청 :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0~2024) 발전 계획, 2021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

생태전환교육이란

기후위기 비상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

### 교육부 :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시(2021년 11월)

생태전환교육이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

## 2022 개정 환경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2022 개정 환경과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정의 중점 중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구현 등과 긴밀히 연계된다. 환경과에서는 전 영역에 걸쳐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통합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디지털 기초 소양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쟁점 탐구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탐구하고 참여 및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고루 반영하되, 특히 '더불어 사는 사람'과 관련하여 더불어 사는 대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외의 생물이나 자연도 적극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환경과에서는 세상과의 '연결', '탐구', '참여'의 원리에 기반하여 영역을 설정하였다. 학습 영역은 '환경과 인간', '환경 체계', '환경 문제와 쟁점', '기후위기와 기후행동', '지속가능성과 시민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과 인간'에서는 환경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 체계', '환경 문제와 쟁점', '기후변화와 대응'에서는 환경 및 환경 문제와 쟁점, 기후변화 등에 관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가능성과 시민 참여'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각 영역내에서도 연결, 탐구, 참여의 원리가 고루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는 각 영역들을 학습하면서, 환경과의 연결을 인식한 후 환경 및 환경 문제와 쟁점, 기후위기 등을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과 시민 참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기본법

-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 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21년 8월)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3.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 ② 정부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⑦ 공영방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기후위기 관련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교육 관련 법

법규명	계획수립	전문인력	프로그램	기구·센터·조직	의무	기타
헌법						• 환경권, 행복추구권, 생존권
교육기본법					• 국가와 지방체의 환경교육 추진 의무화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보제공 • 정책수립참여 • 환경보전교육시행 의무화	
환경교육법	•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 <b>환경교육사</b> • 해양환경교육사	• <b>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b>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 국가환경교육센터 • <b>지역환경교육센터</b>	• 국가와 지방체의 환경교육 시행 의무 • 학교환경교육의무화	
산림교육법	•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숲길등산 지도사)	• <b>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b>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 <b>탄소중립지원센터</b> •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 (국가와 지방체) 탄소중립 과 녹색성장 교육 홍보·확대 • (국민) 참여의 의무	• 탄소중립 등의 정의 • 탄소중립 기본원칙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b>기후대응기금</b> •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환경교육 관련 제도 (탄소중립교육법)

### 탄소중립 지원센터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 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 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축산·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 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 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29)	탄소중립지원센터 (29)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대구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재)대구정책연구원)	대구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재)대구정책연구원)
울산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울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울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부산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부산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재단법인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재단법인인천연구원)
광주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재)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재)국제기후환경센터)
대전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	대전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재단법인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재단법인대전세종연구원)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재단법인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재단법인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강원도탄소중립지원센터(재단법인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탄소중립지원센터(재단법인한국기후변화연구원)
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
경상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금오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	경상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금오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
경상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재단법인경남연구원)	경상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재단법인경남연구원)
전라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재)전북연구원)	전라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재)전북연구원)
전라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광주전남연구원)	전라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광주전남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제주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제주연구원)
구미(경운대학교)	구미(경운대학교) 수원
의성(협동조합함께이름)	의성(협동조합함께이름) 당진
창원(재단법인창원산업진흥원)	창원(재단법인창원산업진흥원) 여수
양주	양주 연천
고양	고양 안산
포천(대전대학교)	포천(대전대학교) 청주(충북대학교)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2021~2025)

비전 :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목표

-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
-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환경교육 협력 체계 확립

추진 방향

- 모든 학생과 시민의 환경학습을 위한 포용적 환경교육
- 부처 간 협력 및 학교-사회 협력을 통한 융합형 환경교육
-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환경교육
-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 협력-관리-정비체계 구축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환경교육

영역	추진과제
1. 환경교육 기반구축	1.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2.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제고
	3.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 기후변화·환경재난 환경교육 서비스 강화
	5. 미래형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 개발·보급
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1.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 기반 강화
	2. 시도 단위별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3. 학교급별 환경교육 실행 지원 제고
	4.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
3. 사회환경교육 강화	1.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기반 정비
	2. 사회환경교육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확대
	3.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 보장
4. 환경교육 협력 확대	1. 환경교육 유관 기관 협업 강화
	2. 사회환경교육 파트너십 확대
	3. 국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확장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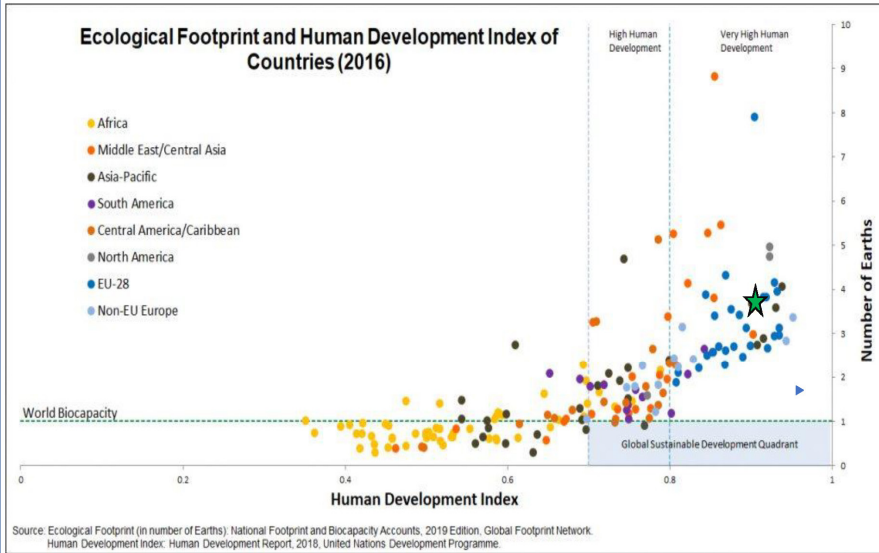
관리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6-2-1	미래 환경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대전환	교육부
	① 교육과정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강화	(환경부, 기상청)
	② 학교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실행 기반 확충	교육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③ 학생 중심형 탄소중립·녹색생활 학습의 장 조성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6-2-2	전국민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활성화	환경부
	①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전문교육 강화	(해수부, 농림청, 산림청, 기상청)
	② 참여중심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문가 양성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③ 시민 친화형 학습의 장 확충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6-2-3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기반 확립	환경부
	①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제도·조직 기반 보강	(교육부, 산림청)
	② 지역중심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환경부
	③ 조사연구 및 정보공유체계 강화	환경부 (교육부, 산림청)
④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협력·융합 체계 강화	환경부 (교육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 초·중등학교 탄소중립·녹색생활 등 기후·생태환경 관련 주제 중심 맞춤형 실천교육 지원
- 전체교사의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교육 지도 역량 함양
- 학교를 탄소중립 체제 및 녹색생활 실천의 장으로 마련
- 생애주기별 일반인 교육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 대상 탄소중립·녹색성장·환경교육 강화
- 디지털교과서, 가상·증강현실 활용 등 신기술 기반 교육자료 개발
- 환경교육사, 산림교육전문가 제도 개편, 기후변화과학 강사 육성
-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과 협업, 연계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지자체의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이행사항 평가
-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콘텐츠 공유를 위한 종합포털 활성화
- 관계부처, 중앙-지역간 파트너십 강화
- 기업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1:1 매칭

생태발자국과 인간개발지수의 관계

인간개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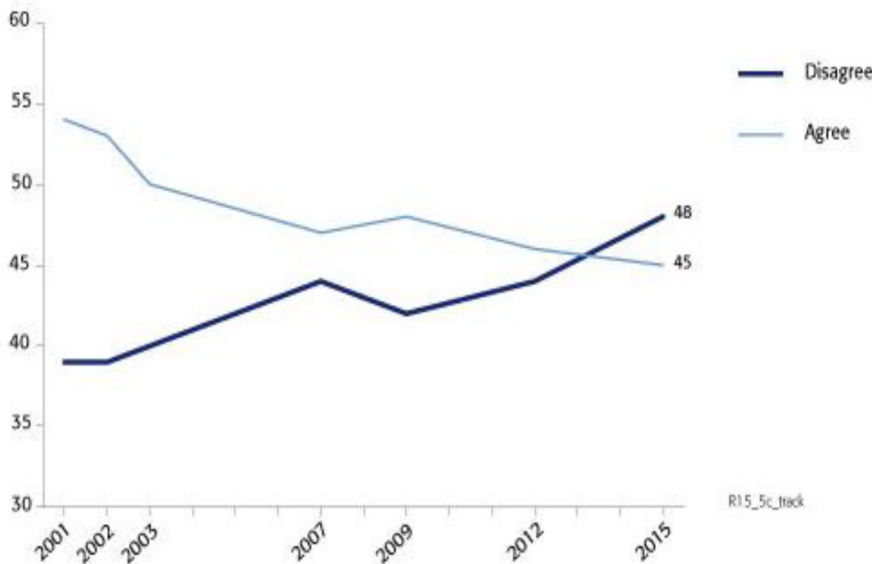
- 파키스탄의 경제학자인 마부 울 학(Mahbub ul Haq)이 개발한 지표로서 지식에 대한 욕망, 더 나은 영양과 건강 서비스, 더 안전한 삶,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함, 충분한 여가 시간, 정치문화적인 자유와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한 나라가 인간의 능력을 어디까지 개발했는가를 계량하여 나타내는 지수.



생태발자국과 인간개발지수의 관계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개발국가는 생태발자국이 작지만 인간개발지수가 낮고 선진국은 그 반대이며, 이는 두 집단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인간개발지수와 생태발자국의 크기는 정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사회는 인간개발지수가 높으면서도 생태발자국의 크기가 1이 아닌 문명(그래프의 오른쪽 아래 음영을 칠한 부분)이며, 이를 생태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전망



GlobeScan Radar(2015)의 조사에 따르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이 더 많아졌다.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2001년에는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은 2011년 54%에서 2015년 45%로 9% 하락했고, 부동이는 2011년 39%에서 2015년 48%로 9%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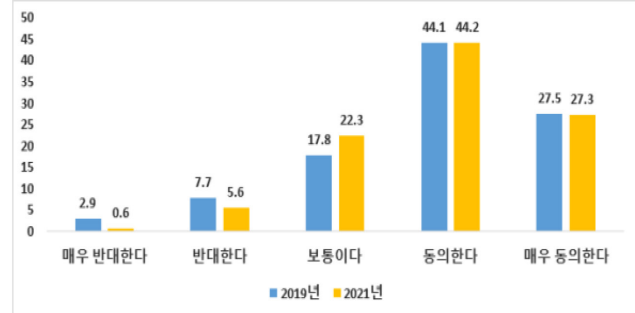
## 미래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전망

국가환경교육센터(2021)의 조사에 따르면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서 부정적 응답이 67.5%로 긍정(32.5%)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명)	(%)	
전체	1,000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125	12.5	67.5
그렇지 않다	550	55.0	
그렇다	301	30.1	32.5
매우 그렇다	24	2.4	
평균±표준편차	2.22±0.6869		

출처: 국가환경교육센터(2021) 기후변화 인식조사.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인식 조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만병통치약 같은 정책은 찾기 어렵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 442명(44.2%), '매우 동의한다' 273명(27.3%)로 긍정적 의견이 71.5%에 달했다.

## 생태문명의 중심 = 자연(생태계)



**자연의 수용능력을 벗어난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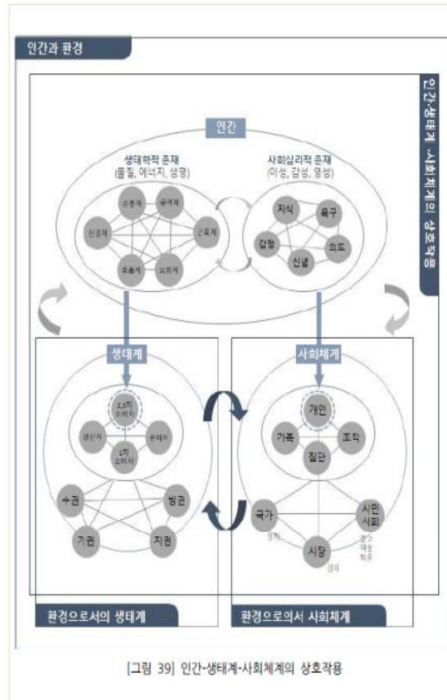
## 생태문명이란?

- 간단: 생태발자국 1이하의 문명 - 좋은 삶의 물적 토대와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토대위에 삶을 설계
- 모든 인류가 나처럼 살아도 지구의 생태적 수용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이 지구적 삶의 표준이 되는 문명
- 산업문명의 멋짐(크고 빛나고 죽지 않는)이 야만이나 몰상식이 되는 문명: 예, 큰 차, 큰 집 등

이재영(2021)

지향점 : 생태문명  
로의 전환

접근법 : 인간-자연-  
문화에 관한 시스템  
(통합적) 접근



[그림 39] 인간-생태계-사회체계의 상호작용

• 문명의 전환이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 생태계, 사회체계의 변화를 포함하여 이들이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변화-생성하는 새로운 형식과 과정을 가진 시스템(개인-생태계-사회체계)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기존의 분과적 접근을 통해서서는 포착, 이해, 설계, 생산, 관리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가진 전체이다.

• 가타리가 쓴 '새 가지 생태학'은 생태사상에서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다. 그것의 의미는 마음생태, 사회생태, 자연생태라는 삼원도식을 통해서 생태근본주의, 사회생태주의, 환경관리주의를 포괄하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생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자연생태로 한정해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우리의 마음과 사회관계망까지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음, 사회관계, 자연환경을 함께 생각해야 전체론(holistic)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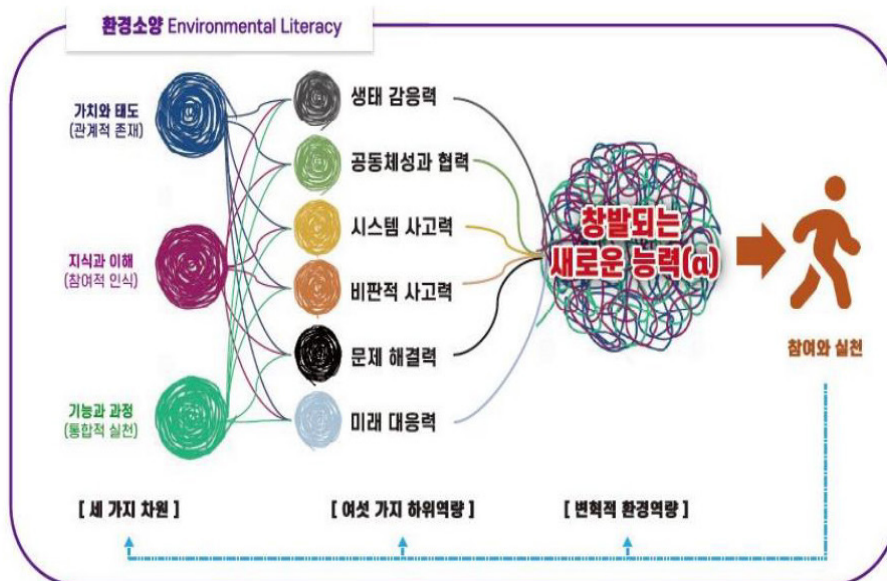
• 교육의 목표로 하고 할 수 있는 '학습자의 자기실현'을 환경교육적 맥락에서 재규정하면, 이러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고 변화-생성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진 생태적 자아(ecological self)로의 거듭남 혹은 작은 자아(self)에서 큰 자아(Self)로의 펼쳐짐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태적 자아는 생태적 일리(관계적, 생성적, 초월적)가 내면화된 자아를 말하는 것이지, 생태계의 일부로서의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추구하는 인간상: 지구생태시민

“지구가 유일하면서 동시에 유한한 인간 생존의 절대 조건이라는 자각과 기후위기 등 현재 인류에게 닥친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구생태계, 사회체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변혁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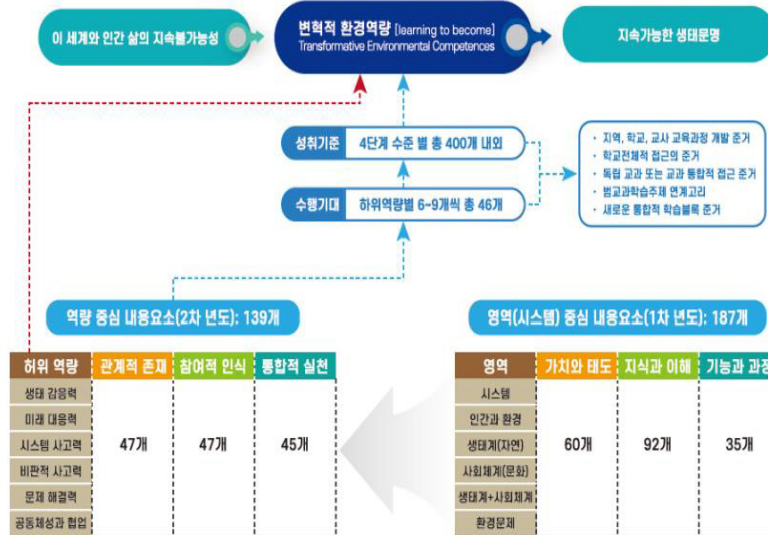


### 환경교육표준 환경소양모형



변혁적 환경역량

"지구생태시민으로서 미래 대응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속불가능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과 사회를 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능력"



변혁적 환경역량과 하위역량

수준	명칭	정의 및 해설
통합	변혁적 환경역량	지구생태시민으로서 미래 대응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속불가능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과 사회를 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능력
	생태 감응력	인간이 자연과 타인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관계적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생명과 공간·교감하고 다양한 외부 충격과 불만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정서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발휘하는 능력
	공동체성과 협력	인간이 다양한 집단과 장소에 속하는 관계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소속감, 연대감, 책임감을 가지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하위	시스템 사고력	경험하는 존재와 현상에 대해 시스템 관점(관계적, 순환적, 종합적, 통합적, 창발적)을 통해 인식하며 시공간적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의 기능, 요소, 관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변화를 예측하거나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경험하는 존재와 현상에 대한 진술이나 판단이 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의심하여 그 한계를 파악하고, 주어진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합리적, 직관적 의문을 제기하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진술이나 판단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능력
	문제 해결력	마을에서 지구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현상이나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과정-결과-영향 관계를 이해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미래 대응력	증거에 근거하여 현재의 지속불가능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며 불안으로부터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모색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기획, 설계, 제안, 실천하는 능력





<표준 활용 사례 : 전남교육청>

※ 전남형 환경교육 성취기준 예시 : 초등학교 5-6학년 환경 관련 성취기준(45개)과 전남형 환경교육표준으로의 각색

번호	과목명	성취기준 내용	전남형 환경교육 표준
1	국어	토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비교하고 협력하여 조정한다.	전남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환경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탐구하고 토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비교하고 협력하여 조정한다.
2	국어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전남의 환경문제 상황(광주전남 환경 10대 뉴스 등)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3	국어	뉴스 및 각종 정보 매체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전남의 환경, 생태, 자연에 관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뉴스 및 각종 정보 매체의 자료를 비교하여 신뢰성을 평가한다.
4	수학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종속하여 변하는 대응 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규칙을 찾아 설명하고, □, △ 등을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전남의 생태계와 사회체계 현황 중에서 1가지 요소씩을 골라 이 두 요소 사이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규칙을 찾아 설명하고, □, △ 등을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 에너지 사용량과 소득수준)
5	수학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탐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적절한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탐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적절한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6	수학	자료를 이용하여 가능성을 예상하고, 가능성에 근거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전남, 대한민국, 지구적 수준의 환경 생태 자료를 이용하여 가능성을 예상하고, 가능성에 근거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예, 기온, 생물다양성, 해수면 등)
7	영어	일상생활 주제나 문화에 관한 담화나 글을 포용의 태도로 듣거나 읽는다.	음식, 주거, 교통, 소비가 환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전남의 작가가 쓴 담화나 글을 포용의 태도로 듣거나 읽는다.
8	영어	일상생활 주제에 관한 담화나 글의 세부 정도를 간단한 문장으로 묻거나 답한다.	Shel Silverstein이 쓴 'The Giving Tree'라는 동화를 읽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묻거나 답한다.
9	과학	화석의 생성과정을 모형으로 설명하고,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하는 활동을 통해 화석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전남 여수시 화정면 등 화석발굴지에 대해 알아보고, 전남의 과거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다양하게 상상, 추리할 수 있다.
10	과학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고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11	과학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 사례 중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태양열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장치 등)를 조사하여 공유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 사례 중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태양열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장치 등)를 조사하여 공유할 수 있다.

<표준 활용 사례 : 인천교육청, 용인센터, 광덕산환경교육센터>

1. 지역(또는 대상)에 맞는 수행기대 선정

- 활동가, 강사, 교사 워크숍 : 표준 이해, 지역 특성과 대상에 맞는 수행기대 선정

1. (지역)수행기대와 연관된 지역 자료 개발 : 지역화 자료

- 지역의 자원과 현안, 수행기대에 맞추어 주제 설정
- ex) 용인 : 물길, 환경이슈, 교육시설 및 단체, 환경 정책, 조례, 환경시설, 용인의 생물, 로컬푸드, 지명의 유래, 축제 등등

3. (지역) 수행기대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 지역 자료 활용





지정토론

사회자 : 장미정(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장)

- 토론1 : 오희령 정림중학교 보건교사
- 토론2 : 나종수 환경교육사
- 토론3 : 이미선 법2동주민자치회 사무국장
- 토론4 : 이운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토론5 : 배능재 대전성모초등학교 교감
- 토론6 : 박경희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 토론7 : 조수영 충남대학교 학생





# 대전환경교육교육센터 1기 성과와 과제 찾기 토론회

오 희 령 (대전정림중학교)

## 질문1. 대전환경교육센터 활동에 참여하셨던 경험과 평가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탄소중립 연수를 받았습니다. 연수를 통해 매년 다양한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배우고, 환경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대전 지역 단체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수에서 나오는 교구나 간식들도 학교 환경교육이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매월 지구를 위한 탄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강의와 교재를 제공받아 학생들과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학교 상상하기’, ‘공유 에코백 만들기’, ‘기후 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등의 주제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도 교구 대여, 환경교육 강사 연계, 홈페이지 안내된 교육 자료 활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 질문2. 대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대전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구 개발 및 보급, 대여도 지속되고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학생 대상 환경교육을 세부 분야별 특화된 교육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예산을 받아 환경 학생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외부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는 수업이 많았습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 연계 ‘기후 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 연계 ‘녹색 직업 특강’, 대전희망유스나래 연계 ‘에너지와 탄소중립 특강’,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연계 ‘자원순환과 업사이클링 특강’, 대전충남녹색연합 연계 ‘기후 위기와 채식 실습’ 등의 특강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활동은 특화되어 있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쪽 강의 부분은 모두 같은 기후 위기 인식에 대한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제별 특징에 맞는 내용들로 특강 부분도 특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기후 환경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두 환경교육을 받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교직원이나 학부모, 일반 성인 대상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환경교육이 실제 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학교,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가족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이나 소비의 주체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대상 교육이 활발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 질문3. 발제를 듣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의견 등

대전 전 지역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전지역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기후 위기 시대에는 환경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전 세대에 걸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교육의 특성상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대전지역의 환경교육 관련 기관들을 연결하고, 대전지역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발전시키려면 대전환경교육센터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전환경교육교육센터 1기 성과와 과제 찾기 토론회

나 종 수 (대전환경교육센터)

## 질문1. 대전환경교육센터 활동에 참여하셨던 경험과 평가

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환경교육사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며, 센터의 중요성과 그 성원들의 노력에 많은 감사를 느꼈다. 프로그램 연구개발에는 다양한 환경교육과 더불어 실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 교안작성 방법과 실제 교육사례 등의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등 꼭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을 매끄럽게 이끌면서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고 보급되고 있기에 센터의 존재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 질문2. 대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 1) 생애 주기별 환경교육과 지역, 마을 단위의 생활 속 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은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목표를 가지고 제공되어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유아, 아동 - 환경정서, 청소년기 - 환경실천 및 권리와 사회변화, 성인 전기 - 환경문화와 시민의식, 성인 중후기 - 환경문화와 공동체 등의 환경교육 또한 지역, 마을 단위의 동체를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은 생활 속에서 변화의 실천과 공동체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위이다. 이 기본단위가 확대 재생산된다면 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퍼져나가 변혁의 목소리로 발전할 것이다. 안타깝게 센터는 시작에 비해 매년 마을환경교육 사업이 줄어들고 있어 이를 다시 활성화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학교 교육의 지속성과 환경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1동아리 1환경전문가 연결
  - 학교환경교육은 지금까지 1회성 환경교육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실천하자는 구호적 환경교육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교육의 한계는 분명하기에 환경을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프로젝트형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기획하고, 함께 해결하며, 문제를 제안하고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우선 학교의 환경동아리를 활성화해야하고 그 대안으로 환경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 질문3. 발제를 듣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의견 등

-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한이 10년. 이제는 환경운동 및 환경교육이 정치적 이념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정권이 바꿨다는 이유로, 정권과 성향이 다름을 이유로 환경교육 예산을 비롯한 센터지원 등을 중단할 수 있는 법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음을 최근 환경교육 예산 삭감 등의 경험으로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기에 조금 더 구체적이며, 강제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외적으로 민간 환경(교육)재단, 환경교육 후원 및 일반회원 확대하는 등의 대응과 환경교육 관련인들이 한 방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국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은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할 다양한 시민들과의 연대를 이어나가 환경교육이 선거에 핵심 정책과 공약으로 발현되도록 시민교육이 방향을 강화하여야 한다.

# 대전환경교육교육센터 1기 성과와 과제 찾기 토론회

이 미 선 (법2동주민자치회)

## 질문1. 대전환경교육센터 활동에 참여하셨던 경험과 평가

우리마을의 전통시장과 주택 주거지역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곳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전환경분과위원들과 마을의 상인들,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함께 모여 환경교육을 듣고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자하였습니다.

안전환경분과원들을 주축으로 주변상인들을 비롯하여 전통시장의 상인회에서 참여하도록 하였고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지원으로 환경교육과 다른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며 우리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함께 토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변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작한 장바구니를 나누어 드리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활동을 하고,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문도 부착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마을이 조금씩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 질문2. 대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교육
- 성인 위주의 실천교육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

## 질문3. 발제를 듣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의견 등

# 대전환경교육교육센터 1기 성과와 과제 찾기 토론회

이 운 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질문1. 대전환경교육센터 활동에 참여하셨던 경험과 평가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8월 30일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와 대학생의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위한 공유·협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공헌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대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의 활동 성과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그 의미 있는 여정에 동행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대학은 환경교육센터의 전문성을 빌려 대학생을 위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동으로 개발한 환경교육과정의 첫 번째 수혜자는 대전과기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입니다. 예비 유아교사는 기후·환경 미래소양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교육부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방법을 가르치는 유아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3일 환경교육센터의 도움으로 유아교육과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환경유해물질 등을 주제로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배움의 기회와 분리배출, 채식 밥상과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생태전환실천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과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소감을 전하며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질문2. 대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시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그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교육입니다. 대전시가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사회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환경 연수를 수행했던 지난 성과들은 분명 대전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환경 보전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실천과 환경주제토론을 지원하는 교사연구 및 교사연수 사업은 올바른 환경의식이 미래로 전달되고 이어지는 교육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잠재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가 가져야할 필수 소양과 역량으로서의 환경리터러시를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청권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정책협의회에서 환경교육이라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젠 학교가 그리고 학교를 운영할 교사와 예비교사가 누구보다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길러 환경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교와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

로 한 생태전환 연수, 더불어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는 교육사업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 질문3. 발제를 듣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의견 등

발제1.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꿈꾸며, 감히 환경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있을는지..... 모두의 삶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면 과연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부모로서 나 스스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누군가 나에게 올바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가르쳐줄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우리 대전에 있었음이 누군가의 노력 없이도 당연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대전 시민의 공통된 문제의식 속에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잊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길로 계속 나아가길 바랍니다.

발제2. 오늘날 우리 청소년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많은 사례의 이야기를 보며 환경교육이 시민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대의 환경교육은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갈아가는 공존의 생태문명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국가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방향성에 더 관심을 갖고 내 자리에서부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대전형 환경교육과정 특화 연구도 제안해볼 수 있겠습니다.

# 대전환경교육교육센터 1기 성과와 과제 찾기 토론회

배 능 재 (대전성모초등학교)

## 질문1. 대전환경교육센터 활동에 참여하셨던 경험과 평가

‘대전환경교육센터’는 각종 환경정보와 환경교육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 제공처였으며,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와 지역, 지역활동가들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에 참가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구를 위한 그린테이블과 탄소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여러 환경교육자료와 정보, 환경교육 꾸러미 등의 지원을 받아 동아리를 알차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도서와 그림책 원화 대여 전시로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구를 위한 탄소다이어트 교재 개발에 참여하면서 환경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교사 연수에 참여하여 타 지역의 모범 사례와 생태 전환교육의 좋은 방법을 나누고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과 연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고, 환경교육 성과공유회에서 다양한 모범 사례를 접하고 지역의 많은 활동가와 교사들을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활동 개선 및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 질문2. 대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첫째,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예산을 2023년도 수준 또는 이상으로 확대 지원해 주십시오. 대전환경교육 센터는 그 이름에 걸맞게 대전환경교육의 센터이자 플랫폼으로 대전의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보급, 환경교육 정보 제공, 환경교육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회와 학교의 환경교육 활성화 등 대전의 환경교육에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예산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을 학생들의 습지 생태교육활동과 시민들의 휴식처로 생태습지를 조성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순천의 순천만생태습지는 교육 장소와 관광 명소로 지역사회에 많은 경제적 환경적 교육적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습지를 조성할 생태 전문가들과 연구하여 생태습지로 조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습지 해설가 양성과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질문3. 발제를 듣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의견 등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해 사회적협동조합 김진화 이사장님의 『대전시의 대전환경 교육센터 폐쇄 결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발제문을 감사히 읽었습니다. 지구촌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환경교육은 1)환경 문제에 대한 제고 인식, 2)환경 보전의식 함양, 3)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4) 지역사회 변화와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 5) 청소년기의 환경교육의 중요성 등을 들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권역별 지역별 환경교육센터 설립 근거를 밝히시고 대전광역시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전국 유일의 대전환경교육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대전시의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을 강력히 비판하셨습니다. 동감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건강한 지역공동체와 지속가능한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을만들기, 환경교육 강화 등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예산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신뢰사회와 대안사회를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던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인권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 등의 3개 기관·단체의 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대전환경교육센터 폐쇄 결정에 대하여 청취한 시민 의견들은 대전시장과 대전시의 정책입안자와 예산 담당자들이 여러 번 곱씹어 읽어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 기반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헌신은 “환경교육 강사들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화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대전시가 대전 유일의 환경교육기관인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것은 환경교육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자, 기후재난, 기후적응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정치 실종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전 지구적인 각성과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전국 유일의 대전환경교육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전광역시의 정책과 예산안에도 마음을 잘 추스르고 조목조목 예산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대전환경교육센터의 괄목할 만한 활동과 그간의 성과, 지역 시민들의 요구 등을 논리적으로 밝혀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고>로 제시해 주신 대전환경교육의 활동 성과를 꼼꼼히 살펴보며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대전환경교육의 센터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환경교육을 누구보다 앞장서 견인하고 체계적이면서도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전환경교육센터 센터장님과 센터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좋은 발제를 해주신 김진화 이사장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토론문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환경교육교육센터 1기 성과와 과제 찾기 토론회

박 경 희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질문1. 대전환경교육센터 활동에 참여하셨던 경험과 평가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대표적으로 환경교육주간과 환경교육한마당에 체험부스로 참여하여 각층의 대전 시민과 만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소개 할 수 있던 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목표를 알릴 수 있던 기회제공부터 지역 내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환경교육은 이제 학교에서만 하는 교육이 아닌, 기후위기와 맞물린 평생교육의 영역으로도 가져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전지역 환경교육 플랫폼으로서 환경교육을 하는 지역 내 기관과 단체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에 강사 인력풀과 교육 정보를 제공해주고, 전문분야로의 분배, 그리고 지역내 환경교육 관계자들을 위한 교구 개발 및 최신 환경교육 트렌드와 이슈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리더십 측정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환경교육 강의 등 여러 강의로 현 지속협에 속해 계신 강사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뉴스레터 발행과 각 분야별 관계자들이 해당하는 교육들을 연수형태로 운영한 것도 좋았습니다.

## 질문2. 대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저희 단체에서는 기후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아직까지 학교측에서 큰 수요는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다양한 환경교육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 상황들을 교육 단체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활발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대상이라 들을 수 없는 강의도 있었는데, 더 많은 강의를 지역 내 강사들에게도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3. 발제를 듣고 제언하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의견 등

2024년 대전시 예산안에 대전환경교육센터 뿐 아니라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기상청과 함께 9월초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외치면서 한 발수목원에 기후위기사계를 설치했는데요. 환경 관련 예산 전면삭감이라는 정반대의 행보에 허탈감만 느낄 뿐입니다. 타 시도는 시비 마련으로 내년에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가능하지만, 대전만 불가한 상황은 우리지역 미래세대들을 위한 길이 아님을 대전시는 알아야 합니다. 대전 시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는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지원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 대전환경교육교육센터 1기 성과와 과제 찾기 토론회

조 수 영 (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 질문1. 대전환경교육센터 활동에 참여하셨던 경험과 평가

월초 “기후정의”를 주제로 한 청년환경의제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학교나 직장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사전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질문지를 공유 해주신 점이 매우 고맙습니다. 토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관심분야 및 필요를 가진 분들과 의견을 나누며 사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단회차 프로그램이기에 매우 구체적인 제안을 도출하진 않았으나 활동을 몇 차시 더 진행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할 방안까지 탐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의제”라는 무시무시하고 딱딱한 단어에 지레 겁이 났습니다. ‘내가 공공의 의제를 찾을 만큼 세상을 잘 아나?’,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이 앞서더군요. 하지만 기후/생태/환경 위기라는 공통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의 참여를 통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무의미한 경험과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론의 장은 적을뿐더러 주제의 범위나 깊이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에 말하지 못한, 말할 생각조차 못한 이야기를 모아 세상에 들려주는 것, “청년환경의제워크숍”의 가장 멋진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질문2. 대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첫째로, 지역의 생태를 매개로 한 교육이 늘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변화에 둔감해진 현대인은 나를 ‘둘러싼 세상’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앞길만 볼 뿐입니다. 비좁은 인식을 확장하지 못하면 기후-생태위기 또한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에 어느 때보다도 생태소양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전에는 계룡산 국립공원, 도심 하천, 대청호 등 접근성이 높고 생태환경적 조망점도 다양한 장소가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학 교육, 바이오블리츠, 생태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같은 경험을 제공한다면 학습자가 일상에서 생태 소양을 키우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목격하며 환경 문제라는 넓고 복잡한 개념과 가까워지는 학습자,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지역을 꿈꾸도록 돕는 대전환경교육센터라! 상상만 해도 설렙니다.

둘째로, 학습자의 참여/행동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을 비롯한 환경 문제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누구나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감히’ 질문하지 않고, 나서지 않으려 합니다. 환경교육이 진정 학습자를 환경시민, 생태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이 틀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민주적 참여정신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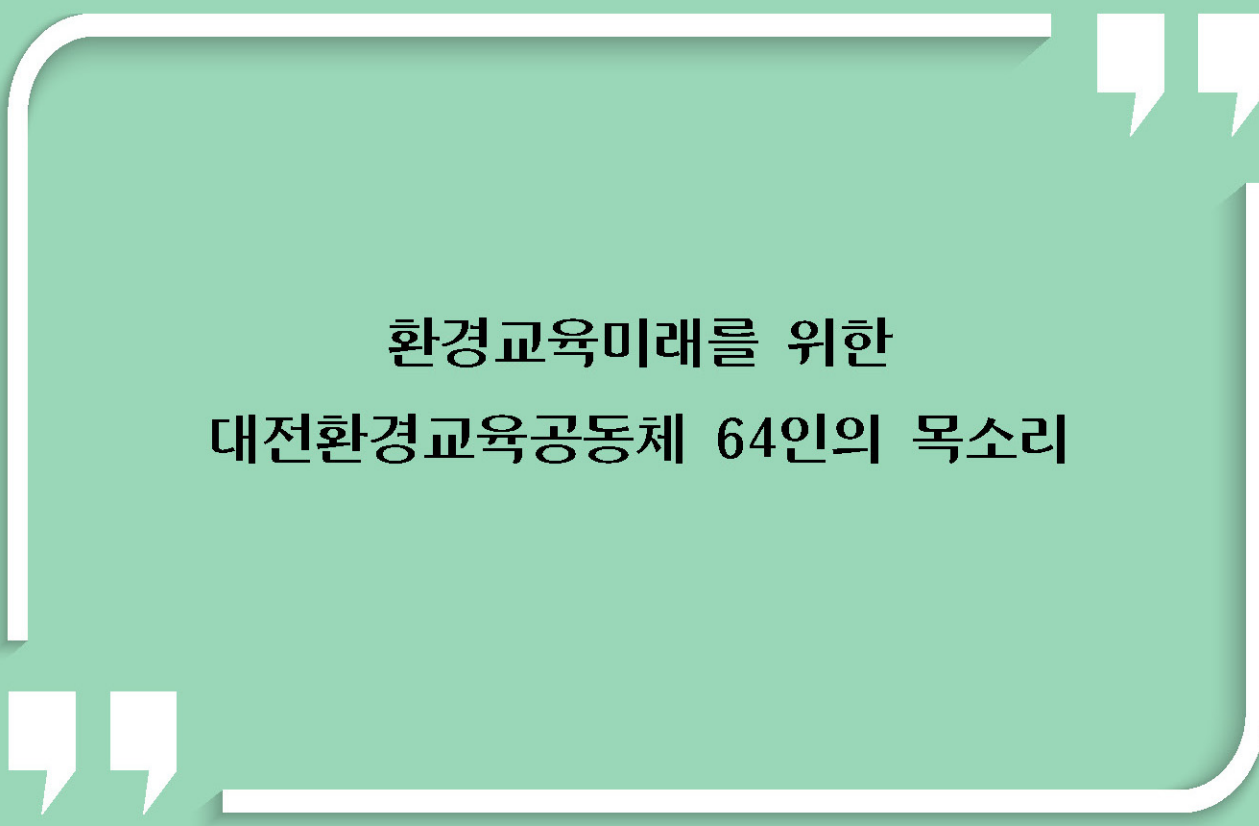
때 '민주적 참여'는 비판적 사고, 소통 기술, 도전할 용기와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탄생하는 복합적 능력입니다. 단방향 강의나 단기 교육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젝트 기반 수업, 거꾸로 교실같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알게모르게 자라납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전문성과 아카이브, 대전의 사회문화적 자원을 조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 질문3. 발제를 듣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의견 등

2023년의 사회와 환경에 도달하기까지 기성세대가 부담한 책임과 2050년의 '불확실한' 탄소중립에 도달하기까지 현 세대, 미래 세대가 부담할 책임의 차이는 이미 너무나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회복적 정의로 작용하는 것이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거대한 영교육과정인 환경이 자리잡으려면 지속적인 지원은 필수입니다.



Blank page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환경교육미래를 위한  
대전환경교육공동체 64인의 목소리**





## 1번째 환경교육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전 지구적으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중요한 시대에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산을 늘려도 어려운데 전액삭감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되고, 더구나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	지금 환경은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은 환경의 심각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고, 환경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에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나 복지관 등을 연계해 주었습니다.	환경강사로서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역량강화 교육과 정보교류가 필요하고, 대전만 유일하게 환경교육양성기관이 없는데 양성기관을 활성화하여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2번째 고등학교 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지구촌 문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탄소중립교육 교사연수에 참가하여 생태전환교육의 의미, 기후위기와 환경교육의 역할 그리고 학교환경교육의 사례, 자원순환프로젝트 수업 설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환경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함께 알아가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다양한 교사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확대하여 일선 교사의 의식 제고 2. 환경교육 관련 학생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학생 의식 제고 3.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학부모 의식 제고

## 3번째 환경교육 관련 단체 상근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 환경교육센터 예산이 전액삭감됐다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다. 세계적으로 2046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정부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대전광역시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환경교육 정보를 지원받았다. 미래 환경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환경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주었다.	1. 환경 교육 수업 지원 (환경교육 콘텐츠 제작, 환경교육의 의무화) 2. 환경강사 역량강화 지원 3.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강화 지원 (전국의 환경교육센터 활동가 워크숍)

#### 4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지속가능한 환경은 현 세대의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물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만큼 대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환경을 위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통해 환경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통한 연수에 다수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수백명의 학생들의 환경인식을 개선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수 지원, 지역 사회를 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학교 등 교육 현장에 환경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적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5번째 환경교육 관련 창업 기업 실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기후 위기 대응에 국가적 움직임이 절실한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사라질 위기라는 것은 대전 시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소식입니다. 더 건강하고 푸른 대전의 내일을 위해 환경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교육센터의 존재는 그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받은 환경전문교육의 도움으로 환경교육 강사를 시작하여 교육 현장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한 환경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가이드북 제작 사업, 교구제작 등을 통해 환경교육 분야의 네트워크참여나 기업의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교육 분야 강사 양성 및 전문성 강화</li> <li>2.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지원과 환경교육문화 형성</li> <li>3.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운영 지원</li> </ol>

#### 6번째 환경교육 관련 단체 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환경보호와 복구, 인식개선 등에 써야 할 예산은 아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라니요? 환경은 우리의 미래고 삶이고 돈입니다.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센터에서 날아오는 이메일을 보며 환경관련 행사 소식도 접하고 몰랐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환경수업이 이뤄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한데, 환경수업을 필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는 환경콘서트 같은 걸 해도 좋겠습니다.

## 7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유일한 단체인 환경교육센터의 2024년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탄소중립 연수는 교사의 환경교육 자질 향상과 환경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탄소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강의와 교재를 제공받고, 아이들은 양질의 환경 프로그램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환경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뉴스레터 환경톡톡'이라는 이메일로 배달되어 학교의 환경동아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여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학교로 찾아와서 체험하거나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양질의 강사가 교사를 상대로 강의해주는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p>

## 8번째 환경교육 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대전환경교육센터의 예산 전액삭감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구는 누구나 공감하듯이 기후위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경제적 효율만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는 환경교육센터 예산 전액삭감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p>	<p>환경도서를 대여하여 지역주민들과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학습회를 진행했고, 교구 대여를 통해 지역아동들의 환경감수성 증진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도서관, 시민강좌 프로그램에서 접할 수 없었던 환경 관련 강좌를 들을 수 있었다. 환경교육센터만의 특화된 주제와 강사 선정으로 차별화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p>	<p>실천하기에는 번거로운 환경실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주변에서 도서대여, 환경 체험 한마당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자주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다.</p>

## 9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대전은 중부지방에서 가장 큰 광역시로서 환경교육에 솔선수범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부터 이기주의에 얽혀서 2024년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p>	<p>지난 여름방학 연수를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며 학교 일선에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리고 오염되어가는 지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 마련</li> <li>2. 일선 학교에서 환경교육 관련 과목 필수배정</li> <li>3. 환경교육 관련 학생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li> <li>4. 체계적인 환경교육 활동 관리 위한 상설부서 확립</li> </ol>

## 10번째 환경교육 관련 기관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변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집단교육이라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모든 생애주기별 상담, 교육을 했을 때 어릴수록 교육 후 실천력이 높다고 체득한 바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지금 풀어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p>	<p>여러 환경교육 선생님들을 통해 자극도 받고 업무적으로 도움되고 있습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가 있어서 든든합니다.</p>	<p>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안정적인 인력구성 등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민에게 환경교육을 받을 기회를 없애지 말아주세요.</p>

## 11번째 환경단체 활동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환경교육 예산이 증액이 되어도 모자랄판에 전액 삭감이라니 이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교육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환경교육 조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견 대전시장의 농간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p>	<p>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 관련 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모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교육 정책과 관련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마련해 주는 등 환경교육 단체들에게도 필요한 곳입니다.</p>	<p>센터 운영에는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매우 적은 예산으로 소수의 인원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 기후위기 시대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p>

## 12번째 환경단체 활동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대전시가 환경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기후재난, 기후적응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환경교육은 중요한 소양이자 시민들의 주체적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임. 대전시환경교육센터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십시오!</p>	<p>다양한 환경교육 소식과 교재 제공 환경교육 기획, 체험의 장 마련 지역환경교육 네트워킹, 발전에 기여</p>	<p>환경교육 예산 증액과 환경교육센터 활성화</p>

### 13번째 청년 환경교육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기후위기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의 입장으로써, 환경교육사로 활동하고 싶은 시민으로서도 환경교육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사로서 역량강화교육, 관계자 워크숍, 환경교육한마당, 연구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사회적 실천의 영역을 확장하며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데에 대전환경교육센터의 교육 및 컨설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센터가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자도생의 삶을 멈추고 생태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질 높은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 14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현재 환경교육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교육이 또 있을까요? 환경 교육에 대하여 외면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하여 무지(솔직히는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하면 그저 분리배출밖에 생각할 줄 몰랐던 제게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푸드업사이클링, 비건 등등 다양한 시각과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 대전환경공공규센터입니다!!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센터와 같은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 15번째 환경교육 관련 단체 활동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기후위기 시대, 더 많은 사람들이 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는 대전시민의 환경교육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환경교육센터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장교육에 나가기 앞서 교육 콘텐츠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환경강사 네트워크 연결 및 워크숍,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독서모임 도서지원 등 모두 대전환경교육센터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 및 강사 연계, 나아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연대 활동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지원으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높인다면 환경교육이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 16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대전지역환경교육 플랫폼으로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이라니! 시대에 역행하고 활동과 필요성과 성과나 역량을 무시한 처사다. 예년이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p>	<p>환경교육 사례 공유, 교사연수, 타 지역의 환경교육 사례 소개 및 공유, 자료 개발 지원(환경교육자료),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환경교육 교구재 보급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름에 걸맞는 대전환경교육의 센터역할을 하고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2. 환경교육 교재 및 교구 보급지원</li> <li>3. 우수환경교육 사례 발굴 소개(대전시, 전국, 해외사례)</li> </ol>

## 17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학교환경교육에 더해 사회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데 무슨 영문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p>	<p>대전의 사회환경교육을 선도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단체와 활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음을 수차례 확인했었습니다. 생태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은 물론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임을 확신합니다.</p>	<p>백마디 말보다도 열가지 정책보다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2024년 예산에 환경교육센터의 지원 예산을 원상복구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p>

## 18번째 환경교육강사(프리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대전은 경제 발전의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경제 및 과학기술과 연구 및 교육분야에 주목을 받는 중요한 역할의 도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분야 중심의 도시로 미래를 위한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문제대응, 환경법규 준수, 환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 환경문제 대응에서 전국 최하위로 역시 대전 충청도는 뭐든 느리고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p>	<p>- 청소년교육, 다문화 교육을 전공하면서 청소년들의 지도자로서 환경 감수성 역량을 위해 환경교육사 3급을 취득하고 대전환경교육센터의 환경 교육 전반에 대한 네트워크와 리소스 및 정보제공으로 청소년기관에서 환경 이벤트 및 환경 활동으로 -농림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에서 우수상(전국5개지역)을 수상했습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우리 대전의 환경교육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환경 교육의 예산지원을 통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사회, 학교, 정부 기관, 기업 등이 환경에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요청하고 제안 및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한 환경교육센터지원</li> <li>2.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금지원</li> <li>3. 환경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도서, 교구 등의 체험에 필요한 지원</li> <li>4. 다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지식 교육과 함께 환경 인식개선 및 환경 의식의 변화를 위한 환경교육사 연구단 지원</li> </ol>

## 19번째 환경교육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환경에 대해 처음 입문하게 된 곳이 대전보다도 작은 도시에서 시작했는데 기대감을 갖은 대전이 환경교육이 더 열악해서 놀랐었는데 그나마 예산 전액 삭감이라니 대전 시민으로서 창피하네요. 광역시에 걸맞게 환경도 광역시 다했으면 합니다.</p>	<p>이론으로만 막연히 알고 있었던 환경을 대전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p>	<p>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거점이 될만한 장소와 그에 맞는 선생님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환경에 대한 대전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도 환경센터가 있다는걸 더 많은 대전시민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p>



## 20번째 환경강사(프리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시민들의 환경인식개선, 환경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교구개발, 환경교육주간행사 등 시행 등을 추진하며, 학교, 기업, 시민사회의 범위를 넘나들며 사업을 펼쳐 나가던 대전환경교육센터에 지원을 늘리지 않는 것만큼 전액삭감이라는 통보는 시대를 역행하며, 대전시민 전체의 환경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2046탄소중립의 중요한 축의 하나가 환경교육임을 관과한 처사입니다. 2046탄소중립은 현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의제이니만큼 중앙정부와의 이질적 정책이라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광역시 역행적 정책 시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환경교육센터의 환경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li> <li>- 패스트패션의 강연을 듣고, 우리집을 돌아보고, 의류부터 미니멀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li> <li>-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하였기에 나의 삶 속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이었습니다.</li> <li>- 대전의 시민으로서 아이와 함께 꼭 받아야할 교육, 캠페인으로 가족이 함께 바뀔 수 있게 만든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li> <li>-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대전지역에서 환경교육 강사를 시작하였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의 실천행동을 위한 캠페인 및 환경교육</li> <li>-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li> <li>-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 사회환경교육</li> <li>-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활동</li> </ul>

## 22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대전환경교육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적 오류라 생각합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예산 삭감을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지구를 위한 그린 테이블&gt; 수업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환경강사님을 파견해 주셔서 아이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높아졌습니다. 비건 간식이나 푸드 업사이클링, 육류지방식단등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li> <li>2. &lt;9월 지구를 위한 탄소다이어트&gt; 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신 환경도서를 학급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읽고 환경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찾아내어, 현재까지 실천 중입니다.</li> </ol>	<p>환경을 위한 실천이 학생들 스스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의 구심점이 없다면 내실 있는 환경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전의 환경교육을 이끌어 주는 주체는 대전환경교육센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익한 프로그램도, 훌륭한 환경강사도, 예산이 없다면 그 어떤 활동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작년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근시안적 안목이 아닌, 장기적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p>

### 23번째 초등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환경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환경에 대한 위기는 느끼지만 자신의 삶에서 살아오던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환경 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지금 현재 얼마나 위협적인 상태이고 지금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탄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와 꾸러미 활용으로 학급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자료의 활용으로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을 위해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한다는 의지를 높였습니다.</p> <p>또한 교사 대상 환경교육연수에 참여하면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본인도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경위기에 대한 알림과 실천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교육센터와 같이 환경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노력해줄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래를 살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p>

### 24번째 환경교육사 인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환경교육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에서만 사라진다니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대전시의 시민으로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모범을 보여주세요!!</p>	<p>환경교육사로서 역량강화를 하는데 대전환경교육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센터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p>	<p>대전시의 결정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번복되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p> <p><b>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b></p>

### 25번째 환경교육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기후위기에 가장 필요한 녹색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생애 걸친 환경교육이 절실합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탄소중립 환경교육도시 대전을 위해 환경교육센터 예산을 복원해 주세요.</p>	<p>환경강사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환경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문양성교육 기본과정, 전문가양성 중급과정)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경교육을 기획함에 있어 대전환경교육센터의 교재·교구대여 사업과 해마다 열리는 환경교육한마당이 큰도움이 되었습니다.</p>	<p>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복원해 주세요.</p>

## 26번째 환경교육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2046 탄소 중립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모두의 과제입니다. 부디 잘못된 정책을 빨리 시정하여 지구와 우리 모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p>	<p>대전환경 교육센터의 교육컨텐츠들을 통해 더욱 전문성있는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교육과 다양한 행사, 컨텐츠를 접할수록 지구위기를 더 실감하게 되고 그만큼 사명감도 커지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많은 대전 모든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p>	<p>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계획을 위해 공헌하고 있는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의 기회로 삼아주세요.</p>

## 27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정부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환경예산 삭감은 당장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ESG 경영이 중시되는 시대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환경교육센터에서 근무중인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정부가 직접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p>	<p>올해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도시 거주자로서 자연 체험 프로그램에는 거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환경교육센터의 인프라 제공으로 이런 진입장벽이 줄어든 것은 물론 함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환경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어서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교육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가치는 단순히 단기적인 지표만으로는 환경센터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p>	<p>일단 무엇보다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여 현재 학생세대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 28번째 청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전 지구적인 과제로 기후 위기가 놓여진 시대에서 환경교육센터가 없어지는 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청년환경의제발굴단을 통해 생물다양성, 기후정의등 의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대전환경교육센터 지원 계속해주세요.

## 29번째 청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환경교육 의무화 시대에 환경교육센터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환경교육네트워크를 만들고, 타지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활동가들의 강연을 듣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유익했다.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을 증액해주세요. 그린잡 예산 확대해주세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 30번째 청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왜 없애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대전시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뉴스만으로 알 수 없는 자세한 학술 정보를 안내받았습니다.	시민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단순히 알림에서 머물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마련

### 31번째 청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미래교육은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선부르게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0시 축제가 환경측면에서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끼게 해줬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에게 빨리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어릴때부터 이슈를 접해서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큰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2번째 청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다른곳에서 응당 하고 있는 것들을 왜 대전시는 하지 않고 있나요? 그렇게 좋아하는 멘치마킹뿐만 아니라 좋은 것은 선제적으로 해야하는데 말이죠.환경이 두 번째가 아니라 환경이 생각되어야 사람도 잘 살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여러 의제발굴을 할 수 있게 도움 받고 있어요.	단기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33번째 청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정부는 “탄소중립 2046”을 외치면서 실질적인 환경교육단체를 없앤다는 것이 말이 안되게 안타깝습니다.	이제 도움 받으려 시작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조직 / 연대 / 활동 기존 교육과 다른 접근 방식의 환경교육

### 34번째 청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대전만 유일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은 전 지구적인 트렌드 아닐까요? 없앤다면 그 이유와 대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전국 단위의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 '왜 환경교육인가?'라는 키워드가 정책과 제도에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가 유지되는 정부정책과 제도의 방향이 나오는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 35번째 청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환경교육센터 예산 삭감은 대전시의 경쟁력 약화 지름길입니다. 미래를 없애는 예산삭감, 철회하여야 합니다.	청년의제발굴단에 참여해 지역의 다른 청년들과 연결되어 환경, 기후위기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토의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예산 삭감 철회하고 전문성있는 환경교육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 36번째 청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환경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기후, 생태위기로 인해 미래세대의 존위가 위협받는 세상에서 어른이 모범을,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대전시는 환경교육 쫓겨 지자체가 되고 싶은가요?	대전에 처음 오고, 환경교육센터의 정보 공유는 대전의 환경 관련 실무자와 활동을 알며 지역을 알아가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환경, 기후, 생태 체험이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아쉽게 끝난 프로그램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마을기업, 직장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 37번째 환경교육 관련 사회적기업 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환경교육센터가 대전에 생겼을 때 너무나도 기뻐고 대전의 앞서가는 환경정책에 대하여 높이평가하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p> <p>예산이 삭감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3년동안 대전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한 환경교육 관계자 및 시민, 교육수강생들의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시대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p> <p>기존 예산을 삭감할때에는 타당한 이유와 통계가 뒤따라야 하는줄 아는데 이런점에서도 석연치 않음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환경교육센터는 대전내 환경교육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모으고 교육하고 연대하는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행보가 대전시가 환경교육도시로 발전해 가는 표본이 되었습니다.</li> <li>2. 대전환경교육센터는 대전시민에게 환경문제 인식과 교육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교육용 교구개발, 행사진행등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li> <li>3. 대전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법 제정과 더불어 학교 및 사회단체에 환경전문교육이 자리잡을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환경교육이 필요하면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찾는 플랫폼 역할을 통해 쉽게 환경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교육은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교육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에 지속적인 노출이 있어야 하는 시대적 필수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육에의 투자가 되어야 마땅하고 후에 인식과 실천력이 늘어난 시민이 환경적 가치확산을 경제적 가치로 승화시킬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문화, 생활분야에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와 논문들에서 이미 입증된 바입니다.</li> <li>2. 성장해가는 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지켜낼 수 있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교육입니다. 그러기에 재정적 지원은 당연하고 현명한 일입니다.</li> </ol>

### 38번째 환경교육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환경문제는 개인, 지역사회, 국가,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환경교육은 개인, 지역사회에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환경교육센터가 과학과 미래첨단의 도시인 대전에 없었지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p>	<p>매해 환경에 관한 정보와 교육사의 전문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사끼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공유공간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교재를 소개, 대여해 주는 대전환경교육의 중심인 곳입니다.</p>	<p>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곳인데 이런 곳을 없애다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캐물어야 합니다.</p> <p>또한 대전시민들의 후원을 받아서라도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 39번째 환경교육 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탄소제로 환경운동이 권장되고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전지역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유일한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의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것에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 황당하고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대전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속적인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시민 환경교육에 더욱 신경쓰고 꾸준한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에 환경센터 건물도 없는 마당에 운영하는 예산까지 삭감이라니... 대전시민을 무시하고 퇴보하는 대전시 행정에 안타깝고 부끄러울 따름이다.</p>	<p>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의 강의와 체험 등 교육을 받고 비로서 확실하게 환경보호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실천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 현재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각 가정과 개인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과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텀블러사용과 손수건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이 생활에서 실천 하도록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p>	<p>1.다양한 연령에 맞는 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걸맞는 충남지역을 아우르는 거점의 환경교육센터의 조속한 건립 필요 요청.(대전광역시 없음) 2.지역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 3.학교 및 생활, 사회환경교육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전문강사 양성.</p>

### 40번째 환경교육 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대전의 환경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교육센터 예산 삭감이라니요. 대전 시민들이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체계적인 교육에 참여하고 많은 변화와 도전을 받아 환경을 위할 행동을 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전은 다른 도시의 환경교육센터나 양성기관이 열약하다고 느끼고 있어 속상했는데,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이 있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산삭감이라니요. 앞으로의 대전 환경교육이 걱정입니다.</p>	<p>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듣고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과 진심으로 함께 걱정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교구제작에도 참여하고 환경강사로서의 꿈도 키우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을 위하여 교육의 기회를 주시고 다양한 소식을 접하게 해준 대전환경교육센터 덕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li> <li>- 대전의 환경교육센터를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li> <li>- 어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습하여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로 성장(예:수원두드림기후센터)</li> <li>- 지역시민의 인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 필요</li> </ul>



## 41번째 환경교육 관련 기관 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대전광역시환경 교육센터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네요. 기후위기 시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 전액 삭감이라니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p>	<p>대전환경교육센터가 학교와 관련 단체와 시민간에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고 탄소중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한 덕분에 좀 더 성숙된 환경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톡톡 월간뉴스레터를 통해 매월 최신 소식과 다양한 환경교육자료를 통해 환경교육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p>	<p>환경교육은 생존교육입니다.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과 다양한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등등을 위해 현재와 같은 환경교육센터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p>

## 42번째 환경교육 관련 활동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온 세계가 인류를 비롯한 지구에 사는 생명들의 생존을 걱정하는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 존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헤쳐나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환경교육은 살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p>	<p>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환경교육사들과 활동가를 모아내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을 연결하는 것에 도움을 받았습니다.</p>	<p>지역의 환경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p>

### 43번째 환경교육 관련 활동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환경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커지고 있고, 지역에서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환경교육센터의 역할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센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p>	<p>-2022년 1월에 환경교육전문가 역량 강화교육을 이수하여 보드게임과 같은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환경교육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꾸준히 활용하고 있으며 좋은 반응과 교육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센터에서 환경교육 교구를 여러 차례 대여하여 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양한 교구를 쉽고 편하게 대여할 수 있어서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환경교육 교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p>	<p>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의 활동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현되어, 지역사회에 특화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을 강화하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p>

### 44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자감세의 피해는 전국민입니다. 생명과 관련하여 환경은 나와 너, 여와 야를 나눌 수 없는 우리의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번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의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은 정치권에서 말로만 외치는 국민 섬김에 전면 배치되는 배신 행위입니다.</li> <li>환경 보전을 위한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 교육 투자는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크기에 예산 전액 삭감이 아니라 오리려 반드시 증액해야 합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의 전문강사에 의한 탄소중립의 의미와 실천 방법 등 교수, 학습법은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음.</li> <li>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환경교육의 노하우를 전수 받는 좋은 기회가 되며 어려워만 하는 환경교육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교육은 그 전문화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물을 일선 학교의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더 나은 환경의식을 함양해야 하기에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함.</li> <li>정치권의 환경의식 개혁이 필요함.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임.)</li> </ol>

### 45번째 환경교육 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지구촌의 위기인 기후 위기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생각해볼 시간이다. 후세 우리 손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아직 아무 생각이 없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교육이 환경교육인데 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강사를 강사들에게는 강의와 역량 강화를 주는 환경교육센터인데 전액삭감이라는 증액이 필요한데. 바로 예산을 원복시키시고 아니 증액시키시오~~~~</p>	<p>센터의 도움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것을 알고 역량강화를 하고 보드게임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었지요 강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p>	<p>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대전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교육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많이 해주세요 강사와 교육이 필요한 이들의 가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p>

### 46번째 환경교육 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탄소중립, 넷제로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환경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환경교육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 교과 전문 교사가 아니다 보니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을 계획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환경교육 센터의 교육 자료를 지원받아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li> <li>2. 기후위기와 플라스틱을 주제로 자료를 받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내용과 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 전문 교사가 아니어도 충분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li> </ol>	<p>학교에는 환경 교과 전담 교사가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전문 교사가 환경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책임질 미래 세대들이 환경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활동 자료집 개발과 교구 활용집 개발 등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 47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2023년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이 6시간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할지 막막할 때,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p> <p>대상에 맞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원하는 유일한 단체인 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 더 꼭 필요한 기관이기에 예산 전액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2월 지구를 위한 탄소다이어트 활동에 참여하여 중학교 한 학급학생에게 친환경 문구와 간식을 배부하고 탄소포스터를 제작하여 인식 개선에 도움을 받음.</li> <li>2023년 4월 학부모 총회에 기후명언 캘리그래피를 대여받아서 1주일간 게시하여 학부모 연수에 도움을 받음.</li> <li>2023년 7월 25일~7월 27일 탄소중립 교육교사연수에 참여하여, 전문 강사의 강연과 환경 보드 게임 및 우리 지역의 환경 관련 단체를 방문함. 또한 이 연수를 기점으로 교과 연계 환경 수업 및 동아리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을 받음.</li> </ol>	<p>대전환경교육센터가 더욱 활성화 되어 교사 연수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p>

## 48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요. 그런데, 환경교육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미래 인재를 키운다는 교육과정을 실현시키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p>	<p>올 한해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환경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환경교육센터의 도움은 큰 힘이었습니다. 환경교육자료도 최신의 것으로 제공받았으며,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구도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조건 예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교육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도 있는 현 시점에서 예산이 늘어나도 모자란 판국인데, 줄인다니요. 말도 안됩니다.</li> <li>- 전문 인력풀 확충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실천사례가 공유되는 자리에 가보니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시며 교육에 영감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지원을 멈추지 말아주시시오.</li> </ul>

## 49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전세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은 미래의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다.</p> <p>2021년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교육의 기반 강화와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및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전만 2024년에 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유감스럽고 개탄한 일이며 반드시 재고해야 할 사안이다.</p> <p>이 사안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는 시 예산이 법률과 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환경교육센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p>	<p>2023학년도 여름방학에 실시한 탄소중립교육 교사 연수에 참가하였고, 연수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의 사례, 생태전환교육의 의미, 지역사회 환경교육 기관 체험, 국가환경교육센터장 및 환경교육 활동가의 강의를 듣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p> <p>대전환경교육센터 누리집의 환경자료실과 '환경톡톡' 뉴스레터를 구독을 통해 매달 이메일로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보내주는 주제별 환경교육 뉴스레터를 받아 보고, 학교 환경교육에 도움을 받았다.</p>	<p>1.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 지원. 예산 담당자들은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 액 삭감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함.</p> <p>2.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환경교육센터 '와우'처럼 교육청과 환경교육센터의 협력적 트윅크 구축, 교육과정 연계 환경교육</p> <p>3.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 특히, 대덕특구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 실시</p>

## 50번째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황당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하고 급한 교육이 환경교육 아닐까요? 질 높은 교육으로 아이들이 환경전문가가 되도록 해도 부족할 판에... 너무나 황당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수를 통한 나의 환경 교육 소양 향상</li> <li>2.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꼭 필요한 수업으로 여겨 보람 있었다.</li> <li>3. 최신 환경 현황과 선도적으로 환경교육 활동을 해온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함께 미래 환경교육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 교육 분야 전문가 양성 확대</li> <li>2. 환경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인력 지원 확대와 환경교육문화 형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li> <li>3. 학교 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확대</li> </ol>

## 51번째 환경교육 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평소 환경교육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삭감이라는 소식은 시대착오적이며 기후 위기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p> <p>전국의 환경교육센터 중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대전밖에 없다는 것이 몹시 안타깝고 대전시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p>	<p>지난 2년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환경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환경교육의 흐름과 정책변화를 공신력 있는 정보와 자료를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처를 연결해주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p>	<p>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녹색성장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공감과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시민의 공감은 교육이 필수적이고 실천하는 환경시민이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활동도 환경도시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그러기 위해선 환경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 예산은 꼭 필요하고 지원해야 합니다.</p>

## 52번째 환경교육 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어떤 분야든, 예산삭감의 경우 뚜렷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전액 삭감이라는데, 그 이유가 도통 뭘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 관계자도 모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가능한 시국이라는데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p> <p>누구라도 이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잘 진행되고 있던, 대전에서 많은 환경교육전문가를 양산하고 있는 교육센터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십시오.</p>	<p>1. 2022년도, 2023년도 학교에서 생태전환교육, 탄소중립교육 등 환경교육을 기획 운영하는 교사들과 사회환경교육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대전환경교육센터의 기획력을 칭찬합니다. 민관학계 협력하는 환경교육의 기틀을 만들고자 노력한 주된 활동입니다.</p> <p>2. 환경교사 1인을 잘 키워내면 소속된 학교 학생들이 수레를 입고, 사회환경교육가 1인을 키워내면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환경감수성을 높입니다. 그 역할을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단체 활동가 역량교육에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p>	<p>1. 과거의 재미없는 환경교육, 도덕교육을 지양하고, 대전지역의 각 영역별 나이별 맞춤교육은 물론, 세대를 이어주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기획과 진행을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 학교와 사회환경교육간 연결과 연대가 필요합니다.</p> <p>2. 맞춤교육도, 역량강화프로그램도 왕성하게 출발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예산지원이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용의 기획력과 실행력에 대한 기반이 공고히 다져질 수 있습니다. 퇴보하는 환경교육정책을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p>

### 53번째 환경교육 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온 세계가 인류를 비롯한 지구에 사는 생명들의 생존을 걱정하는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 존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헤쳐나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환경교육은 살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p>	<p>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환경교육사들과 활동가를 모아내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을 연결하는 것에 도움을 받았습니다.</p>	<p>지역의 환경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p>

### 54번째 환경교육 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환경교육센터가 대전에 생겼을 때 너무나도 기뻐고 대전의 앞서는 환경정책에 대하여 높이평가하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3년동안 대전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한 환경교육 관계자 및 시민, 교육수강생들의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시대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존 예산을 삭감할때에는 타당한 이유와 통제가 뒤따라야 하는줄 아는데 이런점에서도 석연치 않음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환경교육센터는 대전내 환경교육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모으고 교육하고 연대하는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행보가 대전시가 환경교육도시로 발전해 가는 표본이 되었습니다.</li> <li>2. 대전환경교육센터는 대전시민에게 환경문제 인식과 교육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교육용 교구개발, 행사진행등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li> <li>3. 대전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법 제정과 더불어 학교 및 사회단체에 환경전문교육이 자리잡을수 있도록 인프라인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환경교육이 필요하면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찾는 플랫폼 역할을 통해 쉽게 환경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교육은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교육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에 지속적인 노출이 있어야 하는 시대적 필수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육에의 투자가 되어야 마땅하고 후에 인식과 실천력이 늘어난 시민이 환경적 가치확산을 경제적 가치로 승화시킬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문화, 생활분야에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도시가 될 수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와 논문들에서 이미 입증된 바입니다.</li> <li>2. 성장해가는 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지켜낼 수 있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교육입니다. 그러기에 재정적 지원은 당연하고 현명한 일입니다.</li> </ol>

## 55번째 환경교육 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 주민자치회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환경교육에 대한 방향성제시, 강사지원,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자치회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자치회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성인대상의 환경교육에 대한 자문과 교육 콘텐츠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li> <li>2. 주민자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리빙랩사업에서 환경교육센터가 같이 기획하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li> </ol>	<p>이제 3년밖에 안된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시기이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 환경교육에 방향성과 주민들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마을 리빙랩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p> <p>대전환경교육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프로그램 지원 등 간접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 56번째 학교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전 매우 열심히 교육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교사입니다. 다양한 교육연수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늘 그 중심에 환경교육이 놓여있음을 경험했어요. 알수록 불편함을 알기에 피하고 싶었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탄소중립 및 뜨거워진 지구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1학년 아이들과 해오고 있습니다.</p> <p>이 어린이들도 압니다. 지금 지구의 위기가 자신의 미래임을 두려워합니다.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지구에 적응하며, 적극적인 실천으로 좀더 나은 미래를 꾸릴 수 있음을 경험케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적으로도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생각보다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예산이 적습니다.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현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환경도서, 환경삽화, 환경보드게임, 비건간식, 매월 지원되는 환경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교육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이해가 크신 분들이라 다양한 강연 및 포럼들도 알차서, 필기를 꽤나 오래했던 기억이 있어요.</p> <p>대전환경교육센터는 대전 어느 국공립기관보다 내실 있고, 그 쓰임을 다하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 교육 정년까지 20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많은 울림, 배움들을 얻고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환경 도서 지원(학교급, 연령별에 따른 환경 도서를 많이 읽고 나누고 싶어요.)</li> <li>- 환경 보드게임 지원(단순하고 쉽지만 환경교육 전 영역이 담긴 다양한 보드게임이 필요해요.)</li> <li>- 월별 프로젝트 지원: 환경 도서 필사,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는 저금통 등 자원순환과 채식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 관심이 뜨거웠어요. 1년간 꾸준히 실천중입니다.</li> <li>- 환경 체험 부스: 친환경적인 활동 체험들도 꾸준히 이어져서, 실생활까지 이어지면 좋겠어요.</li> <li>- 환경 관련 교원 연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환경 운동가분들의 지속적인 연수가 이어지면 좋겠어요.</li> </ul>



## 57번째 학교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대전 전 지역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p> <p>지금의 시대에는 환경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대전지역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려면 대전환경교육센터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우선 저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탄소중립 연수를 받았습니 다. 연수에서 매번 다양한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배우고, 지역 환경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단체들도 알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p> <p>매월 지구를 위한 탄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강의와 교재를 제공받아 학생들과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p> <p>그 외에도 교구 대여, 캘리그래피 전시 대여, 교육 강사 연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p>	<p>대전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와 연계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p> <p>학교에서 학생들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구 개발 및 보급이나 대여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p> <p>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두 환경교육을 받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p>

## 58번째 학교 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생태전환교육이 교육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 전환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서는 특색 사업으로 지구를 구하는 한가지 행동이라는 지구행 프로젝트도 운영하며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p>	<p>2022학년도에 탄소다이어트, 그린테이블 활동에 학급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했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역시 탄소다이어트, 그린테이블 활동에 참여하여 환경책 필사하기, 지구온난화를 막는 환경보드게임하기, 플라스틱 모아서 기부하기 등을 실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큰 교육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6월에는 환경의 달을 맞아 환경교육센터에서 무료로 환경보드게임을 대여하여 1000여명의 학생들이 즐겁게 놀며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가 있어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p>	<p>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면 좋을 것이고 교사나 학부모 대상의 환경관련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59번째 환경관련 기관 관계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문제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각계각층의 참여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비삭감=시비삭감' 이라고 단순히 예산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p>	<p>공동 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 강사 추천, 환경교육프로그램 추천 등</p>	<p>연령별, 계층(학생, 교사, 주부, 사업가, 공무원 등), 대전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견학)형, 영상형, 토론형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환경교육센터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p>

## 60번째 환경관련 단체 활동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 대전 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이 현재 기후위기 문제와 플라스틱 쓰레기등으로 인해 인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 과학이 아닌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의 변화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전생애주기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학교나 기관등에서도 환경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주제로 한 여러 많은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 예산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정부나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p>	<p>- 그 전부터 여러 곳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해오던 방식의 교육이다보니 조금 다른 차원의 교육을 원했습니다.</p> <p>그러나 강사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정보를 접할 수도 없는 대전의 환경교육 현황이 너무 아쉬웠는데요~</p> <p>대전환경교육센터가 생긴 이후부터 단편적인 환경 교육에서 벗어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더 나은 환경교육을 만들기 서로 자극받고 노력하게 된 거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도움과 힘이 되었습니다.</p>	<p>-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그룹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참여자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지원이 선행되어야겠지요~</p> <p>또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교육들을 보고 지역에 맞게 접목하여 좋은 환경교육을 만들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 61번째 환경관련 환경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환경교육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교육입니다. 예산을 증액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부분삭감도 아닌 전액삭감이라니 시대에 역행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p>	<p>강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며, 가르치기 이전에 잘,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교육과정들은 기존의 지식을 점검하고, 새로운 지식을 익히며 패러다임과 시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배움의 장이었습니다.</p>	<p>어른들이 자행한 이 부끄러운 환경상황을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현재의 상황을 분명하게 알리고 그것이 더 악화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잘 배우게 하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환경교육이 학교교육에서 필수과정으로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자원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p>

## 62번째 대전소재 대학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보호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그 시작은 환경단체가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전은 도시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며 사람이 많아지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 각 분야의 단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환경 보호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코로나 19시기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는 절대 당시의 트렌드로 여겨져선 안 되고 앞으로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환경 단체, 환경 전문가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안이자 재산임을 알아야 합니다.</p>	<p>대전광역시가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했을 때 대전환경교육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진행 중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안들,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의 방향성과 성과들, 대전광역시가 다른 도시의 환경 교육과 비교해서 차이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만의 장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p>	<p>제가 센터 관계자분께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센터 운영에 있어 적은 예산,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환경 문제, 환경교육에 관한 예산과 인원 증가는 물론이며 대전 내 다른 환경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대전 외 환경 단체가 함께 협력할 기회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 63번째 환경관련 단체 관계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지금은 누구나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살아내야 할지 개인, 사회, 국가 모두가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p> <p>그렇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b>【교육】</b> 그것도 <b>【환경교육】</b>입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노인까지 맞춤형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우고, 느끼고, 실천함으로써 생태전환적 사고를 돕는 기후위기시대에 필요한 <b>【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b>는 꼭 필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국비가 삭감되었음에도 <b>【환경교육센터】</b>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p> <p><b>【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b>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나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하고 있는 대전시민들의 의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p>	<p>1.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 환경소식을 접하고, 실천 목록들을 추가하여 환경 실천 역량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p> <p>2. 환경도서 지원입니다. - 지원 받은 환경도서를 책모임에서 다 같이 읽고 토론하며 환경에 대해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p> <p>3. 환경교육 교구 대여입니다. - 쉽고 재미있는 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대상에 맞는 교구를 제안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교육 지도 방법의 질을 높였습니다.</p> <p>4. 세미나, 기행 등 개인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 세미나, 기행 등을 참여하면서 사고의 변화와 경험, 실천력을 높여 교육강사로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1. 환경교육의 플랫폼으로 환경교육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예산과 인력지원 및 확대를 통해 그역할을 확장해야 합니다.</p> <p>2. 환경교육의 확장성을 위한 강사양성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대상에 맞는 생애주기별 및 계층별 환경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 확보를 위해 강사 양성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p>

### 64번째 환경관련 환경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p>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실천하는 지금, 대전환경교육센터의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이란 소식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모두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p> <p>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으로 기후변화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대전환경교육센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p>	<p>환경교육 강의를 하면서 부족하고 필요했던 부분들을 대전환경교육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곳에서 활동하시는 훌륭한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도 얻었으며 직접 교구도 제작하면서 강의에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p>	<p>환경을 위한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도시 대전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가 매우 필요합니다. 환경의 세분화된 주제와 대상에 맞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p>

환경부와 대전광역시에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